

1. (가)의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과 같이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가) | <p>갑: 도덕 언어의 개념 분석과 도덕 추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윤리학의 핵심 과제이다.</p> <p>을: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다루는 것이 윤리학의 핵심 과제이다.</p> <p>병: 이론 윤리를 적용하여 현실 도덕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윤리학의 핵심 과제이다.</p> |
| (나) | |

< 보 기 >

- ㄱ. A: 윤리학은 도덕적 담화에 사용되는 단어와 문장에 대한 의미론적 연구에 주력해야 하는가?
- ㄴ. B: 윤리학은 사회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도덕적 생활에 대한 기술과 설명에 집중해야 하는가?
- ㄷ. C: 윤리학은 도덕규범의 체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합리적 근거 마련에 힘써야 하는가?
- ㄹ. D: 윤리학은 현실적인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접 학문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2. (가), (나), (다)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도덕적 발화(發話)나 가치의 문제들은 전적으로 지식의 영역 밖에 있다. 그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이 서로 다를지라도 여전히 참일 수 있는 어떤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관적인 정서를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 도덕을 단순히 고립된 정의적 표현이나 태도로 환원하려 해서는 안 된다. 도덕은 그 이상

으로 깊은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도덕 판단은 모든 도덕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타당한 보편적 규범화가 가능하다.

(다)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접 학문에 대해 열린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의학, 경제학, 법학, 심리학 등의 지식은 실질적인 도덕 문제 해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보 기 >

- ㄱ. (가)는 도덕 판단인 “자선은선(善)이다.”를 논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ㄴ. (나)는 도덕 규칙의 정립을 통해 윤리적 판단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 ㄷ. (다)는 도덕적 쟁점인 분배 정의나 시민 불복종에 대해 도덕적 해결 의지를 지녀야 한다고 본다.
- ㄹ. (나)와 (다)는 도덕 판단과 관계가 없는 사실 판단의 논리적 관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 그림은 노트 필기 내용이다. A, B, C 윤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I. 도덕에 관한 과학적 연구

- **A 윤리학** : 개인의 도덕적 경험과 사회의 도덕률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도덕적 생활에 대해 객관적으로 기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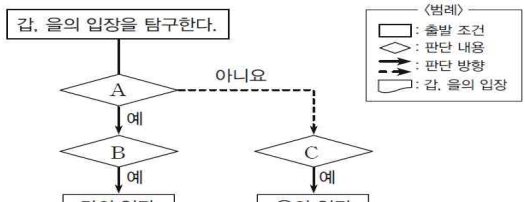
II. 도덕에 대한 철학적 연구

- **B 윤리학** :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탐구함
- **C 윤리학** : 도덕적 담화에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의 의미에 대해 연구하고, 도덕 논증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함

- ① A 윤리학은 도덕적 관행을 경험에 근거한 문화적 사실로 본다.
- ② B 윤리학은 다양한 도덕 이론들의 타당성을 밝혀내는 것에 관심을 둔다.

- ③ C 윤리학은 추론 규칙의 논리적 타당성과 도덕적 지식의 인식 방법을 검토한다.
- ④ A, B 윤리학은 현실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윤리적 판단과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 ⑤ B 윤리학은 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C 윤리학의 지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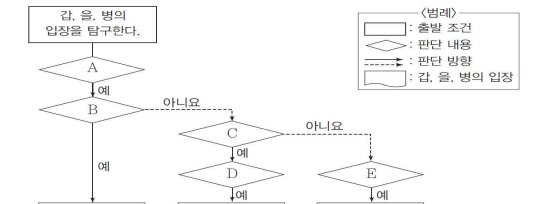
4.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 ~ 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 | |
|-----|--|
| (가) | <p>갑: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를 판정하고 평가하는 척도나 원리를 제시하여 도덕적 행위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또한 윤리학은 보편적 도덕 원리의 특수한 예가 될 수 있는 개개의 실천적 행위와 관련하여, 이의 정당화를 위해 사용되는 척도의 유래와 기능을 확인함으로써 도덕적 행위의 근본 원리가 될 수 있는 도덕이론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p> <p>을: 윤리학에서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천적 원리들에 관한 철학적 해석이 아니라 실천적 언어의 구조와 기능의 분석이다. 이를 위해 윤리학은 실천적 언어가 결합된 도덕적 명제의 논리적 타당성을 규명하고 그 속에 포함된 도덕적 행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가치 중립적 입장에서 실제 사용된 언어들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p> |
| (나) |  |

- ① A: 윤리학은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 기술에 주력해야 하는가?
- ② B: 윤리학은 실천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순수 이론 학문과 구별되는가?
- ③ B: 윤리학은 도덕적 논의의 의미론적 구조 분석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하는가?
- ④ C: 윤리학은 바람직한 삶에 대한 안내를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⑤ C: 윤리학은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시해야 하는가?

5. (가)의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E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가) | <p>갑: 윤리학은 문화 전반의 도덕적 제도와 관행에 초점을 두고 개인의 삶이나 사회적인 삶에 대해 과학적으로 서술해야 한다.</p> <p>을: 윤리학은 이론 윤리를 생태, 생명, 문화 등의 현실 생활에 적용하여 실질적인 도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p> <p>병: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정당화를 바탕으로 현실의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p> |
| (나) |  |

- ① A: 윤리학은 도덕 언어와 개념의 명료화를 주목적으로 삼아야 하는가?
- ② B: 윤리학의 핵심 과제를 도덕적 관습의 구체적인 서술에 두어야 하는가?
- ③ C: 윤리학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당위의 학문이어야 하는가?
- ④ D: 윤리학은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접 학문의 영역과는 분리되어야 하는가?
- ⑤ E: 윤리학의 본질은 도덕 추론의 논리적 구조를 밝히는 것이 되어야 하는가?

6. 편지글의 ㉠ 사상가가 강조할 삶의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 보람.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네가 항상 간직해야 할 ㉠ 조선 시대의 한 사상가의 가르침이 있단다. 그분은 공부하는 사람이 흔히 겪는 고질적인 마음의 병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살피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단다. 즉 부질없이 꼬치꼬치 캐어서 억지로 이치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짝을 억지로 잡아당겨 성장을 도우려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고, 기운을 모두 없애게 되어 마음의 병을 얻게 된다고 보았단다. 따라서 마음을 고요히 하여 본성을 보전하는 공부[涵養], 몸으로 익혀 직접 살피고 실천하는 공부[體察]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단다. ... (후략) ...

- ① 스스로 공부에 힘쓰고 극기(克己)하는 삶을 추구한다.
- ② 옳고 그름의 구분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삶을 추구한다.
- ③ 참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오직 경(敬)으로써 함양하고자 노력한다.
- ④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바로잡아 절도에 맞게 행동하고자 노력한다.
- ⑤ 흩어져 놓아 버린 마음[放心]을 거두어 덕성을 기르는 삶을 추구한다.

7.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윤리학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할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가?’ 등과 같은 물음과 관련하여 인간의 행동에 대한 보편적인 원리를 탐구해야 합니다.

을 : 윤리학은 그러한 질문들에 앞서 ‘옳다는 것과 그르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선하다는 것과 악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물음에 우선적으로 답해야 합니다.

병 : 윤리학은 인류학자, 역사학자 그리고 사회심리학자들이 여러 다른 사회와 각 시대의 다양한 도덕률을 탐구해 왔던 것처럼, 현실적 도덕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추구하고 얻어내야 합니다.

- ① 갑은 윤리학이 도덕적 실천을 하도록 도와주는 학문이어야 한다고 본다.
 - ② 을은 윤리학이 도덕적 언어와 개념의 의미 분석에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 ③ 병은 윤리학이 도덕적 풍습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 ④ 갑은 을, 병에 비해 윤리학이 현실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본다.
 - ⑤ 을은 갑, 병에 비해 윤리학이 인간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8.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도덕적 진술은 감정 표현에 불과해. 그러므로 그것에서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는 없어. 예를 들어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은 ‘나는 거짓말을 싫어한다.’는 감정의 표현에 불과해.

을 : 그렇지 않아. 윤리학은 문화적 사실인 사회의 도덕적 관행을 정확히 묘사해야 해. 도덕적 진술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실제 관행을 관찰함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이야.

병 : 너희들은 윤리학이 당위에 관한 학문임을 간과하고 있어. 우리는 실재하는 객관적 도덕 원리를 정립함으로써 도덕적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어.

< 보 기 >

- ㄱ. 갑은 병과 달리 인간의 도덕적 삶을 안내하는 데 직접적인 관심이 없다.
- ㄴ. 을은 갑과 달리 각 사회의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중시한다.
- ㄷ. 병은 갑과 달리 학문적 성립 가능성 탐구를 윤리학의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
- ㄹ. 갑, 을은 윤리 문제에 대한 윤리적 판단과 해결책 모색을 강조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9.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이
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인간의 본성에 관한 자네의 편지는 잘 읽었는데, 나의 생각은 자네와 다르다네. 인간의 본성은 악한 것이니 그것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네. 인간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이악을 좋아하는데,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다투게 되어, 양보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네. 그렇다면 인간을 인간이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는가? 인간은 분별[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네. 분별에는 분수를 지키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분수를 지키는 것에는 예[禮]보다 큰 것이 없네. ...[후략]...

- ① 모든 인위적인 규범을 초월하여 자연의 섭리에 순응해야 한다.
- ② 사단(四端)을 확충하여 인간의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해야 한다.
- ③ 만물에 고정된 실체가 없음[空]을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④ 본성을 변화시켜 예의와 법도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⑤ 일체의 욕구를 배제하고 정신적으로 평안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10. 고대 동양 사상이 가,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성인(聖人)은 백성들이 간교한 지혜와 욕심을 품지 않게 하고, 무위(無爲)로 다스리기 때문에 다스려지지 않는 경우가 없다. 현자를 높이 지 않아야 백성들이 다투지 않는다.

을 : 지인(至人)은 만물을 각자의 본성에 맡겨 두고 자유로운 세계에서 무궁하게 노닐며, 어떤 것에 의해서도 걸림이 없다. 소요(逍遙)의 경지는 지인의 마음을 밝혀 놓은 것이다.

—<보기>—

- ㄱ. 성인의 가르침을 배워 분별적인 지혜를 쌓아야 하는가?
- ㄴ. 인의의 덕을 수양하여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心齋] 하는가?

- ㄷ.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 ㄹ. 인위적인 문명을 거부하고 소박(素樸)한 삶을 지향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 고대 중국 사상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나무가 곧아 먹줄에 맞는다 해도 구부려야 바위가 되고, 쇠는 솥돌에 갈아야 날카로워진다. 그러니 본성을 변화시켜 인위를 일으켜야 인간은 비로소 선해진다. 사람들이 본성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틀림없이 혼란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보기>—

- ㄱ. 인간은 누구나 노력[僞]을 통해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
- ㄴ. 본성의 선한 단서를 확충하여 도덕적 덕을 실현해야 한다.
- ㄷ. 인의(仁義)는 배움을 통해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 ㄹ. 선왕의 가르침을 익히기보다는 스스로 예법을 제정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2.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대장부는 예(禮)를 충성과 신의가 얹어진 것이며 혼란이 생겨나는 시작이라고 여긴다. 도(道)를 잃게 되면 덕(德)이 나타나고 덕을 잃게 되면 인(仁)이 생긴다. 인을 잃게 되면 의(義)가 나타나고 의를 잃게 되면 예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을:대장부는 천하의 가장 넓은 집[仁]에 거처하며, 천하의 가장 바른 자리[禮]에 서서, 천하에서 가장 큰 도[義]를 실행한다. 자신의 뜻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되면 백성과 함께 도를 실행하고, 기회를 얻지 못하더라도 도를 홀로 굳게 지킨다.

- ① 성왕(聖王)의 교화를 거쳐서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 ②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적인 마음[四端]을 확충하여야 하는가?
- ③ 군주가 제정하고 확립한 외면적 사회 규범[禮法]을 따라야 하는가?
- ④ 정치적으로는 왕도를 추구하고 패도(霸道)를 부정해야 하는가?
- ⑤ 이상적 인간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양해야 하는가?

13.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지인(至人)은 무기(無己)이다. 그러므로 그는 천지 본연의 모습을 타고 여섯 가지 기의 변화를 제어하여 무궁한 세계에 노닌다[遊]. 그러니 도대체 무엇에 의존할 것이 있겠는가!

을 : 물질[色]은 무아(無我)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아야 한다.

<보 기>

ㄱ. 갑은 자신에 얽매이지 말고 자연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ㄴ. 갑은 만물의 타고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긍정해야 한다고 본다.

ㄷ. 을은 항상 변화하는 현상 세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세계를 주재하는 절대적 존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4.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인(仁)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義)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놓아둔채 따르지 않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찾을 줄 모르니 슬프다. 학문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放心]을 찾는 것이다.

을 : 예(禮)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규범이고 강하고 굳세지는 근본이며, 위세를 떨치는 길이고 공적과 명성을 올리는 요체이다. 군주가 예를 따르면 천하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직을 훼손시키게 된다.

<보 기>

ㄱ. 사람은 누구나 수양을 통해 성인(聖人)이 될 수 있는가?

ㄴ. 예는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성인이 제정한 것인가?

ㄷ. 통치자의 덕성에 의해 백성을 교화(敎化)하여야 하는가?

ㄹ. 자신을 닦아 타인을 편안하게 하는 군자를 추구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성인(聖人)은 아무런 속박이 없이 자연에 노닌다. 지식을 재앙의 근원으로 여기고, 예의 규범을 몸을 얹매는 갓풀[膠]*로 여기며, 도덕을 교제의 수단으로 여기고, 기교를 장사하는 솜씨로 여긴다. 성인은 모략하지 않으니 어찌 지식이 필요하고, 깎고 다듬지 않으니 어찌 갓풀이 필요하겠는가!

*갓풀: 짐승의 뼈나 가죽을 고아 굳혀 만든 풀.

- ① 무명(無明)에서 비롯되는 윤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야하는가?
② 성인의 도를 구현하기 위해 도덕적 규범을 실천해야하는가?
③ 의(義)를 쌓아 자연과 하나 되는 호연지기를 길러야하는가?
④ 시비와 선악을 모두 초월하여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하는가?
⑤ 백성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인과 예를 가르쳐야하는가?

16.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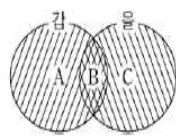
갑:인(仁)은 하늘이 주는 벼슬이며 사람의 마음이다. 아무도 막지 않는데 인을 행하지 않는다면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찾을 줄 모르는 것이다. 학문의 길은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을:예(禮)는 성인이 작위[僞]를 일으켜 만든 것으로, 배우면 행할 수 있고 노력하면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임금이 예를 따르면 천하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직이 훼손된다. 엄한 명령과 형벌만으로는 위세를 떨칠 수 없다.

- ① 갑:인은친소의 구별이 없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랑이다.
② 갑:인을실천함으로써 내면에 측은지심을 형성해야 한다.
③ 을:예는타고난 성품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성현의 가르침이다.
④ 을: 예는욕망 조절의 기준이자 욕망 충족의 한계를 제시한다.
⑤ 갑, 을:인과 예로 다스림으로써 백성의 성(性)을 교화시킬 수 있다.

17 (가)의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가) | <p>갑: 군자와 소인의 본성(性)은 다르지 않다. 그들은 모두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한다. 그럼에도 군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성을 교화하고 인위를 일으킬 수 있기[化性起僞] 때문이다. 인위를 일으키면 예의가 생겨난다.</p> <p>을: 군자는 마음에 뿌리박고 있는 인의예지(仁義禮智)를 본성으로 삼는다. 그리고 군자는 소인과 달리 그 마음을 보존한다. 인으로써 마음을 보존하고 예로써 마음을 보존한다. 어진 자는 남을 사랑하고 예가 있는 자는 남을 공경한다.</p> |
| (나) |  <p>「별 예」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

<보 기>

- ㄱ.A:군자는소인과 달리 타고난 본성에 순응하지 않는다.
 ㄴ.B:사람은 누구나 교육과 수양을 통해 군자가 될 수 있다.
 ㄷ.B:군자와소인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서로 같지 않다.
 ㄹ.C:사람이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타고난 본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 18 다음은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인(聖人)은 무위(無爲)에 머물고,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합니다. 또한 만물을 잘 자라게 해 주면서도 가지려 하지 않고, 공(功)을 이루어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성인(聖人)은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시비도 몸에 지니지 않습니다. 또한 덕의 조화[和] 속에서 마음을 노닐게[遊心] 합니다.

갑

을

- ① 갑:성인은 물처럼 낮은 곳에 머물면서 남들과 다투지 않는다.
 ② 갑:성인은사람들이 공적을 쌓아 널리 이름을 떨치도록 돕는다.
 ③ 을:성인은도(道)의 관점에서 시비와 선악을 명확하게 분별한다.
 ④ 을:성인은각각의 자연적 특성을 가진 만물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다.
 ⑤ 갑, 을:성인은 예(禮)를 가르쳐서 백성의 본성이 실현되도록 한다.

19.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색(色)을 즐거워하지 말고 색을 찬양하지 말며 색을 취하지 말고 색에 집착하지 말라. 무슨 까닭인가? 만일 비구가 그럴 수 있다면, 곧 색을 즐거워하지 않게 되어 마음이 해탈하기 때문이 아니라. 수(受), 상(想), 행(行), 식(識)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오온(五蘊)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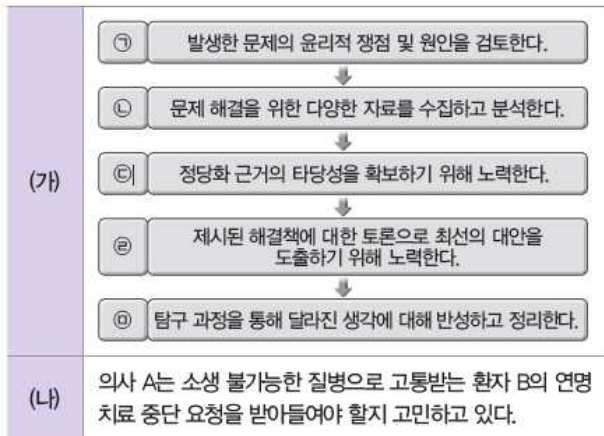
<보 기>

- ㄱ.오온의 실상(實相)을 바르게 알아야 해탈할 수 있다.
 ㄴ.만물은 무상(無常)하며 현실적 삶 그 자체는 고통이다.
 ㄷ.불변의 실체로서의 '나'에 근거하여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ㄹ.모든 고통의 발생과 소멸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존재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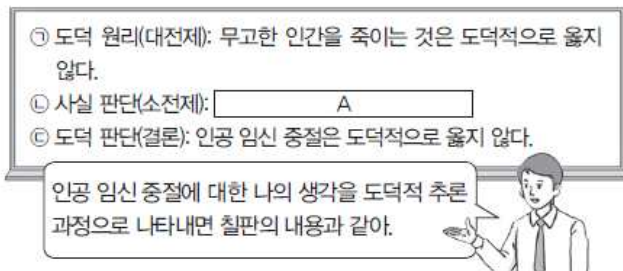
5 4 4 2 2 2 5 1 4 5
 2 5 4 4 4 4 5 1 4

1. (가)의 단계로 (나)의 사례를 윤리적으로 탐구할 때, 각 단계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연명 치료 중단에서 쟁점이 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② ㉡: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례를 찾아본다.
 ③ ㉢: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근거를 객관적으로 검토한다.
 ④ ㉣: 연명 치료 중단 여부는 윤리학적 접근이 아닌 의학적 사실에 기반하여 판단한다.
 ⑤ ㉤: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타당한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2. 다음은 도덕적 추론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은 규범적 차원에서 보편화 가능한 내용이어야 한다.
 ② ㉡에는 태아가 무고한 인간이라는 사실적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③ ㉢은 ㉠과 논리적으로 상충되지 않을 때 정당화될 수 있다.

④ A에는 ‘인공 임신 중절은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것이다.’가 적절하다.

⑤ ㉠, ㉡에는 모두 가치 중립적인 내용이 들어갈야 한다.

3. 다음 사상이 강조할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눈의 모습은 근엄해야 하며, 마음을 가라앉혀 거처하기를 마치 상제를 대하듯이 하라. 발의 모습은 반드시 신중해야 하고, 손의 모습은 공손해야 하며, 걸을 때에는 땅을 가려서 걸으며, 개미집도 밟지 말고 돌아서 가라. 문을 나서면 손님을 대접하듯 공손하게 하고, 일할 때에는 제사를 지내듯 하며 조심하고 두렵게 하여 감히 대충 해서는 안 된다. 병마가 막듯이 입을 다물고, 성곽을 지키듯이 잡념을 막으며, 성실하고 진실하여 감히 경솔함이 없어야 한다. 동쪽으로 간다고 말하고 서쪽으로 가지 말며, 남쪽으로 간다고 말하고 북쪽으로 가지 말며, 일할 때에는 마음을 보존하여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가지 일이라고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세 가지 일이라고 세 마음을 가지지 말며, 오직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모든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 보 기 >

- ㄱ.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ㄴ. 자신을 구속하는 분별적 관념을 잊고 무위를 실천해야 한다.
 ㄷ. 하늘의 이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간의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
 ㄹ. 도덕적 주체로서 자신을 자각하여 선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4. 갑, 을, 병의 윤리적 탐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제: 인간 배아세포를 이용한 실험에 대한 다양한 윤리적 탐구

사회자: 인간 배아 세포를 이용한 실험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탐구할 때, 주된 탐구과제는 무엇일까요?

갑: ‘인간 배아 세포를 이용한 실험이 허용되는 국가가 전 세계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와 같은 설문 조사를 실시 해야합니다. 이처럼 도덕적 현상과 문제를 파악하여 사실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을: 인간 배아 세포를 이용한 실험이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규범적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보편적인 규범 원리를 실제적 윤리 문제 해결에 활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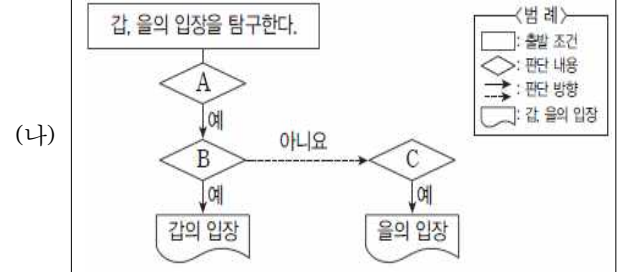
병: 인간 배아 세포를 이용한 실험에 대해 ‘옳음’, ‘그름’ 등과 같은 언어의 의미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처럼 도덕적 언어의 개념이나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① 갑의 관점은 사회가 유기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고 본다.
- ② 을의 관점은 인간 행위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 ③ 병의 관점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상호 작용의 맥락을 중시한다.
- ④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집합적 단위로서의 사회 구조를 중시한다.
- ⑤ 갑의 관점은 병의 관점과 달리 사회 현상의 의미가 개인의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5.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한 개인의 생활, 그리고 사회의 구조와 기능 속에서 존재하는 도덕 현상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축적하여 현실적 도덕에 대해 과학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윤리학은 어떤 이상적인 도덕을 구축하고, 또 정당화할 가능성을 모색하기보다 현실적 도덕을 과학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해야 할 사실의 집합이어야 한다.


을: 한 학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이론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의 구조와 기능의 분석이 필요하다. 윤리학에서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천적 원리에 대한 철학적 해석이 아니라 도덕적 논의에 사용되는 용어들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 < 보 기 > —
- ㄱ. A: 윤리학은 도덕적 규범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 ㄴ. B: 윤리학은 도덕적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에 주력해야 하는가?
 - ㄷ. B: 윤리학은 도덕적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하는가?
 - ㄹ. C: 윤리학은 도덕 신념의 진위를 밝히는 추론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6. (가)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A에 들어갈 적절한 답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가) | 기술은 인간의 힘의 행사이며 동시에 인간 행위의 한 형식이다. 인간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숙고되어야 하며, 인간의 힘의 행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힘의 변증법에서 첫 번째 힘은 자연에 대해 인간이 행사하는 힘인데, 이것은 인간 이성의 작용이다. 두 번째 힘은 힘 자체가 힘에 대해 통제를 하게 되고 힘의 주인이 되어 버린다. 세 번째 힘은 인간을 다시 힘의 통제자로 돌려놓고 두 번째 힘이 자연의 한계를 넘어서기 전에 두 번째 힘의 지배를 꺾 수 있는 힘이다. 세 번째 힘은 우리가 기술의 발전에 내재한 무한한 진보의 이념을 지혜의 도움으로 제한할 수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
| (나) |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 전통적인 윤리학을 넘어서 새로운 윤리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10px;">A</div> </div> </div> |

— < 보 기 > —

- ㄱ. 기술 발전으로 약화된 인간 중심주의적 전통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ㄴ. 기술이 인간의 삶을 위협하지 않도록 윤리적으로 성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ㄷ. 기술의 발달과 도덕적 숙고의 간격인 윤리적 공백을 메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 ㄹ. 기술에 대한 현세대의 윤리적 판단은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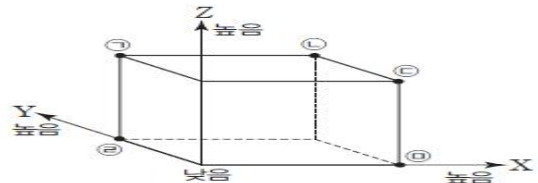
큰 도가 행해진 세상에는 천하가 모든 사람의 것이다. 사람들은 어진 이와 능한 이를 선출하여 관직을 맡게 하고, 서로 간의 신뢰와 친목을 두텁게 한다. 재화가 헛되이 버려지지 않지만 그것을 결코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으며, 스스로 일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지만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이를 일러 대동(大同)이라고 한다.

- ① 인간은 도덕적 본성을 확충하고 실천해야 하는가?
- ② 군자는 자신을 수양한 이후에 타인을 편안하게 해야 하는가?
- ③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직분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 ④ 통치자는 덕(德)과 예의에 따라 교화하는 덕치를 추구해야 하는가?
- ⑤ 통치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 질서 확립을 바탕으로 한 부국강병인가?

8.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갑: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는 상황을 보게 되면 모두 놀라고 측은해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부모와 친분을 맺으려고 해서도 아니고, 친구들에게 칭찬을 바라서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다면, 측은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을: 위대한 도(道)는 이름이 없으며 위대한 변론은 말이 없다. 위대한 인(仁)은 편애하지 않고 위대한 겸손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위대한 용기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도가 흰히 들여다보이면 도가 아니고 말도 변론만을 위한 것이면 부족하다. 알지 못함을 알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 X: 영토가 작고 인위적 문명의 발달이 없는 무위(無爲)의 사회를 강조하는 정도
- Y: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덕목을 사회적 규범으로 강조하는 정도
- Z: 존비(尊卑)와 친소(親疏)의 구별을 전제로 한 사랑을 강조하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9.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옛날의 참된 사람[真人]은 모자란다고 억지 부리지 않고, 이루어도 우쭐거리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꾀하지 않았다. 이를 일러 마음으로 도를 해치는 일이 없고 사람의 일로 하늘이 하는 일에 간섭하려 하지 않음이라 한다. 이런 이를 바로 참된 사람이라 한다.

<문제 상황>

A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돈을 많이 벌었다. 많은 부를 축적한 것이 자랑스러웠던 A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으스대고 다니고 있다.

- ① 인(仁)을 회복하기 위해 사욕을 버려야 합니다.
- ② 재화를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 ③ 부나 명예를 추구하기보다 도(道)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 ④ 외부 조건에 구애되지 않고 시비선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 ⑤ 자연적 욕망을 모두 제거해 부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10~11. (가),(나)는 동양사상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마음의 이치는 매우 방대하여 본떠서 잡기 힘들며, 매우 넓어서 끝을 보기 어려우니 진실로 경(敬)으로 일관하지 않는다면 어찌 성(性)을 보존하여 체(體)를 확립할 수 있겠는가. 마음의 발함은 터럭 끝을 살피기 어려운 것처럼 미미하고, 구덩이를 밟는 것처럼 위태로우니 진실로 경으로 일관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기미를 바르게 하여 용에 통달하겠는가? 군자의 학문은 마음이 아직 발하지 않을 때는 경을 주로 하여 존양(存養) 공부를 하고, 마음이 이미 발하였을 때도 또한 경을 주로 하여 성찰 공부를 하는 것이다.

(나) 감각적인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저급하며 속되고 고귀하지 않고 이로움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고, 결과 없는 고행을 일삼는 사람은 고통스럽고 고귀하지 않고 이로움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래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안목을 주고 지혜를 주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中道)를 완전히 깨달았다.

10. (가), (나) 사상의 입장에서 <사례>의 A에게 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례>

부와 명예만을 좇다가 회의감을 느낀 A는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에 대해 고민이 많다.

- ① (가): 인위적 규범을 버리고 욕망을 다스려 본성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 ② (가): 물욕에 유혹되지 않고 항상 마음을 바르게 하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 ③ (나): 삶의 모든 현상이 허무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 ④ (나): 참선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 ⑤ (가), (나): 자기 해탈을 위한 종교적 수행은 필요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11. (나) 사상의 입장에서 다음을 주장한 사람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옛날 사람들은 터럭 한 올을 뽑아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 해도 하지 않았다. 사람마다 자기의 한 올 터럭을 뽑으려 하지 않고, 사람마다 모두 세상을 이롭게 하려 하지 않으면 세상은 평화롭기 마련이다.

< 보 기 >

- ㄱ.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ㄴ. 타인에 대한 배려의 정신을 실천해야 불성이 형성됨을 간과하고 있다.
- ㄷ. 자신과 같이 남도 소중하게 존중하여 자비를 실천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ㄹ. 동물과 달리 모든 인간은 인연에 의해 생겨난 존엄한 존재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윤리학은 도덕 이론을 전개하거나 도덕적 신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도덕적 용어들의 개념을 분석하고, 도덕 명제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을: 아닙니다. 윤리학은 어떤 문화나 사회의 도덕적 현상과 문제에 대해 가치중립적으로 명확하게 기술하고 기술한 현상들 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 제 생각에 당신은 윤리학이 ㉠

- ① 각 시대의 다양한 도덕규범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② 사회 집단의 도덕적 관행들을 문화적 사실로 보아야 함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③ 도덕적 삶을 위해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것에 주력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④ 도덕 추론의 타당성 입증에 주요 탐구 과제로 삼아서는 안 됨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⑤ 도덕 현상의 객관적 서술보다 도덕 개념의 논리적 분석에 주력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13. (가)의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E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가) | <p>갑: 윤리학은 보편적 도덕 원리를 특정한 생활 영역과 행동 영역에 적용함으로써 실천적인 학문이 되어야 하며, 도덕규범의 당위적 요구와 개개의 도덕 행위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p> <p>을: 윤리학은 전 세계 사회 집단들의 구체적인 도덕적 관행을 문화적 사실로 보고, 도덕적 관행에 대한 가치 중립적 설명을 학문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p> <p>병: 윤리학은 도덕적 개념들을 이해하고 도덕 원리와 도덕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과 집단이 행동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옳은 행동에 관한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p> |
| (나)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flex-end;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right: 5px;"> <병 에> A→E : 비판의 입장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에 시> A←E : 비판의 내용 </div> </div> |

< 보 기 >

ㄱ. A: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학이 인접 학문의 영역과 분리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ㄴ. E: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덕 원리에 대한 탐구가 필요함을 간과한다.

ㄷ. A, C: 윤리학이 도덕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당위의 학문이어야 함을 간과한다.

ㄹ. B, D: 윤리학의 핵심 과제를 문화 전반의 도덕적 관행에 대한 과학적 기술에 두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4.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가 강조하는 공부의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 에게

자네가 이제 공부를 시작한다는 말을 들었네.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자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 주려고 하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고, 본성은 모든 착함의 근원이므로 공부의 시작은 흠어지고 해이해져 놓아 버린 마음, 즉 방심(放心)의 상태를 거두어 덕성을 기르는 일을 하는 것임을 명심했으면 하네. 이에 자네가 공부를 할 때에는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공부에 전념하게나. 첫째, 마음을 한군데에 집중하여 잡념이 들지 않게 하고[主一無適], 둘째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엄숙한 태도를 유지하며[整齊嚴肅], 셋째, 항상 깨어 있어 또렷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보게[常惺惺].
(후략)

- ① 심성(心性)을 올바르게 갈고닦아야 한다.
- ② 경(敬)의 자세로 자신의 삶을 성찰해야 한다.
- ③ 흠어져 놓아 버린 마음을 거두어 덕성을 길러야 한다.
- ④ 시비(是非)의 분별에서 벗어나 자연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
- ⑤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바로잡아 절도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15.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절제 있는 사람은 중간의 방식으로 관계한다. 그는 건강에 기여하는 모든 것이나 좋은 상태를 위해 진정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적절하게, 또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욕구하며, 이런 것들에 진정 방해가 되지 않는 다른 즐거운 것들, 혹은 고귀함을 벗어나지 않거나 자신의 힘을 넘지 않는 즐거운 것들을 욕구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즐거움들이 갖는 가치 이상으로 그 즐거움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절제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이성이 규정하는 대로 그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 ① 절제 있는 사람의 욕망적인 부분은 이성이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 ② 절제 있는 사람은 마땅히 원해야 할 것을 마땅히 원해야 할 정도로 원한다.
- ③ 절제 있는 사람은 좋아해도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좋아하지 않는다.
- ④ 절제 있는 사람은 무절제한 사람이 즐기는 모든 것들을 중간의 방식으로 즐긴다.
- ⑤ 절제 있는 사람이 지닌 절제의 덕은 지나침의 악덕과 부족함의 악덕 사이에 존재한다.

16.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대도(大道)가 사라지자 인의(仁義)가 생기고, 지혜가 일어나자 큰위선이 생겼다. 여러 친척이 화목하지 않게 되자 효도와 자애가 있게 되고, 국가가 혼란해지자 충신이 생겼다.

(나) 근본이 서면 도(道)가 저절로 생기게 된다. 군자(君子)가 되기 위해서는 근본에 힘써야 하며, 효도와 공경은 인(仁)을 실천하는 근본이다.

- ① (가): 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덕규범을 실천해야 한다.
- ② (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기 위하여 인의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③ (나): 도의 실현은 인위적인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④ (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도덕적 공동체를 실현해야 한다.

⑤ (가), (나):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실천 덕목인 효가 필수적이다.

17.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사례>의 A에게 제시할 적절한 조언만을 <보기>에서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성인(聖人)은 이로움과 혜택을 만대에 두루 베풀지만, 사람을 특별히 편애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사물에 통달하려는 사람은 성인이 아니고, 편애하는 사람은 인자(仁者)가 아니고, 하늘을 시간으로 구분하는 사람은 현자(賢者)가 아니다.

<사례>

평소 A는 친구들의 입장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친구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다. A는 소원해진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 < 보 기 > —

- ㄱ. 도덕규범에 좌우되지 않고 만인을 평등하게 존중해야 합니다.
- ㄴ. 외부 조건에 구애되지 않고 시비선악을 명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 ㄷ. 자신의 인식과 가치관을 타인에게 인위적으로 강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 ㄹ. 다툼의 소지가 없게 재화를 공정히 나누어 정의(正義)를 실현해야 합니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18. (가)의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
|-----|---|
| (가) | <p>갑: 어진 사람은 인(仁)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을 이롭게 여긴다. 오직 어진 사람이라야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다.</p> <p>을: 도(道)를 잃은 뒤에야 덕(德)이 드러나며, 덕을 잃은 뒤에야 인이 드러나고, 인을 잃은 뒤에야 의(義)가 드러나며, 의를 잃은 뒤에야 예(禮)가 드러난다.</p> <p>병: 비구는 자애(慈愛)가 함께한 마음으로 머문다. 비구는 모든 곳에서 모든 중생을 자신처럼 여기고, 모든 세상을 향하여 원한 없고 고통 없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머문다.</p> |
| (나) | |

— < 보 기 > —

- ㄱ. A: 모든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 ㄴ. B: 규범이나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정신적 자유를 추구한다.
- ㄷ. C: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무지한 삶을 추구한다.
- ㄹ. D: 이기적 욕구를 절제하면서 검소하게 살아가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사례>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욕을 극복하고 예(禮)를 실천하는 것이 인(仁)이다. 하루라도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간다면 이 세상 누구로부터도 어질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인을 행하는 일이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 남에게 달려 있겠는가.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말아야 한다.

<사례>

고등학생 A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심하게 욕을 하고 거칠게 행동한다. 친구들은 모두 이러한 A를 가까이하기를 꺼린다.

- ① 존비친소와 시비선악을 분별하지 말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세요.
- ② 타고난 내면적 도덕성보다 외면적 사회 규범인 예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세요.
- ③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도의 관점에서 타인과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세요.
- ④ 모든 존재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연기(緣起)를 이해하고 자비를 실천하세요.
- ⑤ 자신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서(恕)의 덕목을 실천하세요.

20. 갑, 을, 병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윤리학은 모든 행위자에게 타당한 도덕적 표준이나 원칙을 찾아 제시해야 한다. 즉 행위자의 성품과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보편적 도덕적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을: 윤리학은 다른 무엇보다도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윤리학은 행위를 평가하는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병: 윤리학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겨나는 현대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도덕적 판단과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표준과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즉 기존의 윤리학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대의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 ① 갑: 윤리학은 도덕적 관행의 객관적 기술에 전념해야 한다.
- ② 을: 윤리학은 도덕 현상에 대한 원칙 탐구에 전념해야 한다.
- ③ 병: 윤리학은 논리적 추론의 타당성 검증을 본질로 삼아야 한다.
- ④ 갑, 병: 윤리학은 삶의 지침이 되는 도덕규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⑤ 을, 병: 윤리학은 도덕 실천보다 언어의 의미 규명에 힘써야 한다.

1강~2강(1)-2

| | |
|-----------|-----------|
| 4 5 2 4 3 | 5 5 5 3 2 |
| 2 5 3 4 4 | 4 1 4 5 4 |

1.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가) | <p>갑: 마땅히 그래야 할 때, 또 마땅히 그래야 할 사람들에게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서, 또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감정을 갖는 것은 중용이자 최선이며, 바로 그런 것이 훌륭함에 속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위와 관련해서도 지나침과 모자람 그리고 중용이 있다.</p> <p>을: 배려를 말할 때 단지 배려하는 주체가 아니라 관계에 대해 적절하게 언급해야 하며, 우리는 배려받는 사람의 반응을 고려해야 한다. 학생들 각자의 요구와 흥미에 따라 다양한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미로와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신중하게 이끌어 줄 필요가 있다.</p> |
| | |

< 보 기 >

- ㄱ. A: 타고난 도덕적 덕을 습관화를 통하여 완성해야 한다.
 ㄴ. B: 처해진 상황을 고려하여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ㄷ. B: 당면한 윤리 문제의 구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ㄹ. C: 배려의 덕은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수양을 통해 길러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질문에 모두 바르게 대답한 것은?

갑 : 정의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려는 확고하고 영원한 의지와 관련된 것이며, 피조물들에게 각자의 몫을 나누어 주는 창조의 행위는 곧 자연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창조된 자연적 질서는 “선은 추구하고 악은 피해야 한다.”를 제1계명으로 삼는다.

을 : 정의롭고 공정한 것이란 준칙에 따른 행위가 보편적 법칙에 따라 각자의 자유와 공존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도덕 법칙은 하나의 완전한 존재자의 의지에게는 신성(神性)의 법칙이지만,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게는 의무의 법칙이다.

| | 질문 | 대답 | |
|---|---|-----|-----|
| | | 갑 | 을 |
| ① | 행위의 도덕성을 도덕 법칙에 근거한 의무의 실천에 두는가? | 예 | 예 |
| ② | 행위의 도덕성을 가장 큰 유용성을 산출할 규칙의 준수에 두는가? | 아니요 | 예 |
| ③ | 행위의 도덕성은 사회 공동체 전통의 실천과 관련해서 결정되는가? | 예 | 아니요 |
| ④ | 행위 그 자체보다 행위가 가져올 결과가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는가? | 예 | 아니요 |
| ⑤ | 행위의 정당성은 신에 의한 자연 질서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가? | 아니요 | 아니요 |

3.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나)의 A에게 제시할 적절한 조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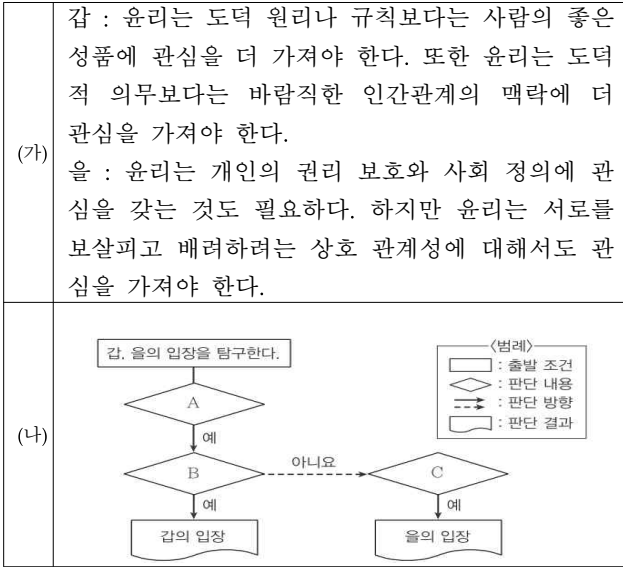
| | |
|-----|--|
| (가) | <p>갑: 한쪽에서는 쾌락의 가치의 총량을, 다른 쪽에서는 고통의 가치의 총량을 합산해 보라. 만일 차감한 값이 쾌락 쪽에 기운다면, 그것은 그러한 개별적 개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행위의 좋은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만일 그것이 고통 쪽에 기운다면, 전반적으로 행위의 나쁜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p> <p>을: 두 가지 쾌락에 대해 똑같이 잘 알고, 그 둘을 똑같이 즐기고 음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보다 높은 능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특정 삶의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짐승이 누리는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해 준다고 해서 하급 동물이 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p> |
| | <p>(나)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씨는 길거리를 가다가 지갑을 주웠다. 지갑에는 많은 돈과 함께 신분증도 들어 있었다. A씨는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 주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자신이 가질지를 고민하고 있다.</p> |

< 보 기 >

- ㄱ. 갑: 정직해야 한다는 보편적 도덕 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ㄴ. 갑: 자신과 지갑 주인을 포함한 사회 전체에 최대 이익이 되는 방안을 선택하세요.
 ㄷ. 을: 쾌락의 양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임을 명심하세요.
 ㄹ. 을: 순간의 이익보다 질적으로 수준 높은 쾌락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세요.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A: 도덕적 판단 기준으로 보편적인 도덕 법칙의 준수를 중시하는가?
- ㄴ. A: 도덕적 행위에 영향을 주는 내면적 특성이나 감정을 중시하는가?
- ㄷ. B: 도덕 법칙에 근거한 의무의 무조건적 실천을 강조하는가?
- ㄹ. C: 도덕 법칙의 보편성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을 강조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5. 갑, 을의 윤리적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p>갑 : 가치와 책임의 대상은 경제적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고,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가장 적은 비용과 희생을 통해 가장 높은 순이익과 쾌락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 즉 '비용 - 편익 분석(CBA)'은 윤리적으로도 정당화가 가능하고, 여러 대안에 대한 가장 합리적 선택이기 때문이다.</p> <p>을 : 가치와 책임에 관한 미래 지향적인 윤리는 이미 행해진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책임이 아</p> |
|---|

| |
|--|
| <p>나라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배려와 예방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윤리이다. 따라서 '예방적 책임' 대상에는 인간은 물론 생명 공동체도 포함되어야 한다.</p> |
|--|

< 보 기 >

- ㄱ. 갑은 주로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 ㄴ. 을은 비호혜성의 원리를 수용해 책임의 범위를 확장하자고 제안한다.
- ㄷ. 을은 갑과 달리 책임의 전제 조건인 생명이功利성에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ㄹ. 갑, 을은 행위와 정책의 옳고 그름이 행위자의 선의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6.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p>갑 : 행복이란 다름 아닌 쾌락이고, 고통이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일은 그 만큼 더 좋은 일이다. 따라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도덕과 입법의 원리이다.</p> <p>을 : 행복해지려는 것은 인간의 필연적인 욕구이지만,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의무를 위반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은 의무의 원리가 될 수 없다. 선의지는 오로지 의무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이다.</p> |
|--|

- ① 갑은 공리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본다.
- ② 갑은 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동등하게 고려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도덕성은 사회 전체의 행복 극대화라는 목적 달성 여부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인간의 행복과 도덕 원리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모순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도덕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임을 알아야 한다고 본다.

7.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도덕성은 내면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도덕법은 ‘이것을 행하라.’가 아니라, ‘이것이 되어라.’라는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올바르게 행위 하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면 옳은 것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성향, 동기, 감정을 가지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리의 원리에 의해 정당화되는 규칙에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어떤 사상가의 주장이 ㉠고 생각한다.

- ① 행위의 유용성보다 행위자 내면의 도덕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개별 행위의 결과만을 기준으로 도덕 평가를 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의무 의식에서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 ④ 모든 이에게 적용 가능한 보편적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 ⑤ 도덕 판단에서 행위자가 유덕한 품성을 지녔는지의 여부가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8. 갑, 을 사상가들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이 세계에서 또는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이다. 지성, 기지 같은 정신의 재능들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들도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극도로 악하고 해가 될 수도 있다. 선의지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음’의 필요 불가결한 조건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을: 공리는 어떤 것이든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에게 이익, 쾌락, 선, 행복을 가져다 주거나 고통, 악, 불행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속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윤리란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고려할 때, 가능한 최대량의 행복을 산출할 수 있는 행위를 하도록 지도해 주는 기법이라고 대략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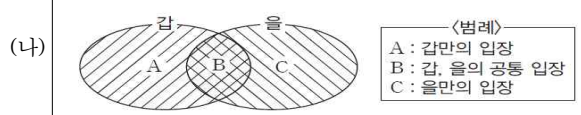
< 보 기 >

- ㄱ.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항상 비도덕적인가?
- ㄴ. 쾌락은 그 자체로 선이며, 고통은 그 자체로 악인가?
- ㄷ. 실천 이성이 스스로 세운 보편적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ㄹ. 도덕 판단 시 항상 자기의 이익을 배제하고 공리의 원리를 따라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9. (가)의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가) **갑:**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권자의 지배하에 두었다. 오직 고통과 쾌락만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준다.
- 을:**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는 편이 낫고, 만족하는 바보가 되기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편이 낫다.



< 보 기 >

- ㄱ. A: 행복과 불행의 양은 도덕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 ㄴ. B: 쾌락은 그 자체로 선이고, 고통은 그 자체로 악이다.
- ㄷ. B: 행위의 동기가 선하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그 행위는 비도덕적이다.
- ㄹ. C: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유용성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0. (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적절한 반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가) | 특정 행위가 바람직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용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최대 유용성을 산출하는 규칙의 집합을 결정한다음, 그 집합에 속하는 규칙을 기준으로 삼아 특정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 |
| (나) | 어떤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대안들에 유용성의 원리를 적용한 결과, 어떤 행위가 가능한 다른 대안들보다 더 많은 유용성을 산출할 때 오직 그때에만 그 행위를 옳은 것으로 수용해야한다. |

< 보 기 >

- ㄱ. 어떤 행위가 더 큰 유용성을 줄지 때 순간마다 신속히 계산하기 어렵다.
 ㄴ.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을 과장함으로써 불공평하게 공리를 판단할 수 있다.
 ㄷ. 공리를 감소시키는 특정 행위를 선호하므로 도덕적 직관과 어긋날 수 있다.
 ㄹ. 문제가 복잡할 경우에 여러 대안들이 초래할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1.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덕은 합리적 선택과 결부된 품성 상태로, 우리와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중용에 의존한다. 이 중용은 이성에 의해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규정할 그런 방식으로 규정된 것이다. 중용의 덕은 지나침에 따른 악덕과 모자람에 따른 악덕 사이의 중간에 있다는 점에서 중간을 발견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땅한 때에, 마땅한 사람에게, 마땅한 정도로 감정을 드러내거나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두려움과 태연함의 중용은 용기이다. 태연함이 지나친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다. 두려움이 지나치고 태연함이 모자라는 사람은 겁쟁이다.

- ① 사회 계약 정신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② 도덕적 행동은 실천 이성에 따라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본다.
 ③ 도덕적 선을 반복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훈련이 중요하다고 본다.
 ④ 습관에 의해 이루어진 행동은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없다고 본다.
 ⑤ 도덕적 감정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본다.

12.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도덕 법칙은 지성적 존재로서의 나의 가치를 인격성에 의해 무한히 고양시킨다. 나의 인격성 속에 있는 도덕 법칙은 동물성으로부터, 더 나아가 모든 감성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있는 삶을 나에게서 드러내 준다.

을 : 한 행위가 가져다주는 쾌락의 총량과 고통의 총량을 계산해 보라. 이 둘을 비교하여 차감했을 때 쾌락 쪽이 남는다면 그 행위는 관련자 전체 또는 개인들이 모인 사회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좋은 성향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병 : 타인의 실재를 파악하는 것, 가능한 한 최대한 그가 느끼는 것을 느끼는 것은 배려자의 관점에서 배려할 때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배려의 원형이며, 배려하는 사람에게 배려받는 사람이 응답할 때 배려가 완성된다.

- ① 갑은 도덕을 행복 실현의 수단으로 간주한다.
 ② 을은 모든 쾌락에 대해 질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본다.
 ③ 병은 윤리적 배려를 자연적 배려에 예속되는 것으로 본다.
 ④ 갑, 을은 도덕 법칙을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본다.
 ⑤ 을은 갑과 달리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는 보편적 원칙이 없다고 본다.

13.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사례>의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정한 법은 자연과 일치하는 이성이며, 모든 것에 적용되고 불변적이며 영속적이다. 진정한 법은 그 법이 명하는 의무에 따르도록 하며, 법이 금하는 사악한 행위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와 모든 시대에 유효한 영원히 불변하는 법이 존재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모두를 지배하는 주인이며 통치자인 신이다. 왜냐하면 신은 진정한 법의 저술자요, 반포자이며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지배하는 재판을 주관하는 집행자이기 때문이다.

<사례>

A는 하루하루를 보람 있게 지내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자신이 계획한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기도 해서 힘들어하고 있다.

- ① 어떤 행위가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② 타인의 잘못된 행위를 용서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 ③ 예견할 수 있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 ④ 지나치거나 부족한 감정을 조절하여 좋은 행위를 습관화해야 한다.
- ⑤ 최대의 유용성을 산출하는 행위 규칙에 따라 행위를 결정해야 한다.

14.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사례>의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각 개인이 행위할 때 따라야 할 유일한 기준은 개인의 행복, 즉 쾌락이다. 개인이 행하고자 하는 행위가 이런 것이든 그밖에 다른 것이든 간에, 고통이나 쾌락을 제외하고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근거로 삼아 행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을 : 결과로서가 아니라 순전히 근거로서 나의 의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 만이, 그러니까 순전한 도덕 법칙 그 자체만이 존경의 대상일 수 있고 명령일 수 있다. 무릇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는 경향성의 영향과 그와 함께하는 의지의 일체 대

상을 전적으로 격리해야만 한다.

<사례>

A는 우연히 절친한 B가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 시험 결과를 의심한 선생님이 B에게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니라고 발뺌했다. A는 선생님이 자신에게 친구가 부정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묻는다면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아니면 친구의 부정행위를 눈감아 주어야 할지 고민이다.

- ① 갑 : 양심의 명령에 따라야 하므로 사실대로 말하세요.
- ② 갑 : 반드시 도덕 법칙을 따라야 하므로 사실대로 말하세요.
- ③ 을 :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사실대로 말하세요.
- ④ 을 : 보편화 가능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려면 사실대로 말하세요.
- ⑤ 갑, 을 : 친구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사실을 말하지 마세요.

15. 다음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유(思惟)는 청각이나 시각이나 또 고통이나 쾌락이 정신을 괴롭히는 일이 전혀 없을 때, 가장 잘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 될 수 있는 대로 그것과 상관하지 않을 때, 영혼이 육체적 감각이나 욕망을 전혀 갖지 않고 참으로 존재하는 것을 추구할 때 가장 잘 사유하게 된다. 철학자는 이와 같이 육체를 신통치 않게 여기며, 그 영혼은 육체에서 피하여 홀로 있으려 하는 것이다.

< 보 기 >

- ㄱ. 육체는 순수한 인식을 불가능하게 하는 감옥과 같다.
- ㄴ. 죽음은 태어남, 늙음, 병듦과 더불어 고통의 하나이다.
- ㄷ. 영혼은 죽음을 통해 영원불변한 이데아의 세계로 갈 수 있다.
- ㄹ. 죽음 이후에는 어떤 것도 인식할 수 없으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6.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기독교이건, 공리주의건 간에 전통적인 서양의 도덕적 가르침은 타인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인간에게 가르쳐 왔다. 쓰레기를 바다나 대기로 버리는 것,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 자식을 많이 출산하는 것, 자원을 소모하는 것은 모두 미래 또는 현재의 이웃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적인 도덕은 다른 것에 의해 보충할 필요 없이 우리의 생태적 관심을 정당화하는 데 충분하다.

을 : 이제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힘을 과학을 통해 부여받고, 경제를 통해 끊임없이 충동을 받아 마침내 사슬로부터 풀려난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의 권력이 인간에게 불행이 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통제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의 윤리학을 요청한다. 이러한 윤리학은 다음과 같은 명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 ①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현세대의 욕구를 절제할 필요가 있는가?
- ② 인간의 생존보다는 생태계의 보전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하는가?
- ③ 현세대는 미래 세대의 생존과 삶의 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
- ④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생태계를 보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가?
- ⑤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통적 윤리학과는 다른 새로운 윤리학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17. 다음 글의 입장에서 지지할 견해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죽음이란 ‘세상을 떠나는 것’이며, 이는 더 이상 ‘세계 안에서 존재자들과 관계하는 존재가 아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존재가 죽음과 함께 생명이 없는 동물의 시체와 같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죽음과 함께 현존재는 ‘고인(故人)’이 되며, 그러한 존재로서 장례, 매장 등의 예식을 통해서 추모해야 할 존재가 된다. 고인의 유족들은 그를 ‘경건하게 추모하면서’ 그와 함께 존재한다.

| 학생 견해 | 갑 | 을 | 병 | 정 | 무 |
|---|---|---|---|---|---|
| 고인은 생명이 없는 물질적 사물로서의 존재 의미만을 갖는다. | √ | √ | | | √ |
| 현존재는 타인과 함께 있기에 죽음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다. | √ | | | √ | √ |
| 현실 세계 내에서 유족들은 여전히 고인과 더불어 있을 수 있다. | | √ | √ | √ | |
| 현존재는 고인의 ‘죽음’을 고인의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다. | | | √ | √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8. (가), (나) 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
|-----|---|
| (가) |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네 가지 고통, 즉 생로병사(生老病死) 중 하나이다. 그렇다고 죽음이 삶의 끝은 아니며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죽음을 통해 다른 생으로 연결된다면 생사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의 삶이 이후의 삶을 결정하므로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
| (나) |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고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영혼이 육체와 함께 있는 동안은 순수한 인식을 가질 수 없으므로, 죽음 이후에야 순수하게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

- ① (가)는 현세에서의 업이 내세(來世)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 ② (가)는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나)는 죽음 이후에는 인식할 수 없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 ④ (나)는 죽음 이후에 육체의 구속에서 벗어나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가), (나)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내세(來世)로 이어지는 한 과정으로 보았다.

19. 갑, 을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은 다른 생물과는 달리 주체적 행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주어진 환경을 자유롭게 고치고, 바꾸고 지배할 수 있다. 하지만 싸움·죄·고뇌·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것이 곧 한계 상황이다. 인간은 가난의 고통, 병의 고통 등 헤아릴수 없이 많은 고뇌 속에서 한시도 헤어날 수 없다. 죽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지만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운명적 한계 상황이다.

을: 허위의 장막에 가려진 일상적이고, 비본래적인 자기에서 진실한 본래적인 자기로 돌아가게 하는 근원적인 것에는 불안이 있다. 불안은 구체적인 어떤 대상에서 오는 위협스러운 마음인 공포와 구별되어야 한다. 불안에는 일정한 대상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무(無), 즉 죽음에 대한 불안이다. 현존재는 원래 유한한 존재요, 죽음에의 존재이다. 현존재는 유한한 존재로서 무에 접하고 있고, 죽음 앞에서 있다는 것을 느낀다. 이것이 불안의 근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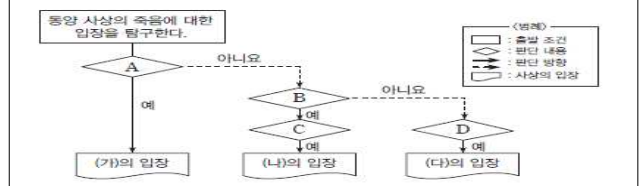
- ①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 현실의 삶에 충실해야 하는가?
- ② 죽음은 실존에 대한 자각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는가?
- ③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가?
- ④ 죽음을 통해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진리를 얻을 수 있는가?
- ⑤ 죽음과 같은 한계 상황을 회피해야만 고통이 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가?

20. (가) ~ (다) 사상의 입장을 그림과 같이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사람을 섬길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으며, 삶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 알 수 있겠는가?

(나) 기(氣)가 변해서 형체가 되고, 형체가 변해서 생명이 되었으며, 그것이 변해서 죽음이 된 것이다.

(다) 전생에 뿌려진 씨앗은 이번 생에 받은 것이고, 다음 생에 거둘 열매는 이번 생에서 행하는 바로 그것이다.



- ① A: 죽음을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 ② B: 죽음은 태어남, 늙음, 병듦과 더불어 고통의 하나인가?
- ③ C: 죽음은 또 다른 세계로 윤회하는 과정인가?
- ④ C: 삶과 죽음은 차별이 없으므로 죽음에 초연해야 하는가?
- ⑤ D: 죽음 이후는 아무것도 없는 무(無)의 상태인가?

21. (가)의 고대 동양 사상이자 갑, 고대 서양 사상이자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가) | <p>갑 : 자연은 내게 형체를 주었고, 삶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늙음으로 나를 편하게 하며, 죽음으로 나를 쉬게 해 준다. 그러므로 삶과 죽음이란 이렇듯 하나로 이어진 것이니, 내 삶을 좋다 함은 바로 내 죽음도 좋다고 하는 것이 된다.</p> <p>을 : 죽음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산 사람에게는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고, 죽은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불멸에 대한 갈망을 제거시켜 준다.</p> |
| (나) | |

< 보 기 >

- ㄱ. A: 삶과 죽음은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인가?
 ㄴ. B: 죽음은 현실을 벗어난 또 다른 세계로의 윤회를 의미하는가?
 ㄷ. B: 삶과 죽음은 기(氣)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분별적 인식의 대상인가?
 ㄹ. C: 죽을 것을 예상해서 미리 고통스러워 하는 일은 헛된 것인가?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22.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고대 서양 사상이자 갑, 고대 동양 사상이자 을의 죽음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 “죽음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현자는 삶을 도피하려고 하지 않으며, 삶의 종단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삶이 그에게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삶의 부재가 어떤 악으로 생각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을 : 모든 중생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니 목숨이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업(業)에 따라 중생들은 제각각 갈 것이니 공덕(公德)과 사악함이 결실대로 간다. 악업을 지은 중생들은 악처(惡處)로 갈 것이고, 공덕을 지은 중생들은 선처(善處)로 간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모든 생명에게는 공덕이 저세상에서의 기반이다.

㉡ 학생 답안

죽음에 대한 갑, 을의 관점을 비교하면 갑은 ㉠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긴 삶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을 향유하려고 노력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불멸에 대한 갈망을 제거시켜 준다고 주장하였다. 을은 ㉢ 인간은 자기가 행한 행동[業]의 결과로 죽음 이후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 선한 행위는 선한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인간은 내세를 생각하지 말고 현실에서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 1 4 3 4 1 5 3 5 4
 3 3 1 4 2 5 4 3 2 4
 1 5

1.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A의 행동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가) | 나는 의무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된 모든 행위는 그것들이 비록 이런저런 의도에는 유용하다 할지라도 무시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들은 의무와 상충하기조차 하며, 과연 그것들이 의무로부터 일어난 것일 수 있느냐는 물음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실제로는 의무에 맞는 것이지만, 다른 경향성으로 인해 그렇게 하도록 몰아세워져 그렇게 한 행위도 제쳐 놓는다. 왜냐하면 그 의무에 맞는 행위가 의무로부터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의도에서 일어난 것인지 쉽게 구별되기 때문이다. |
| (나) | 가게 주인 A는 어리숙한 고객에게도 바가지를 씌우지 않고 제값을 받고 물건을 팔고 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바자지를 씌우게 되면 장기적으로 고객들 사이에 나쁜 소문이 퍼져 가게의 이익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①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지 못했으므로 도덕적 가치가 없다.
 ② 어리숙한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았으므로 도덕적인 행동이다.
 ③ 자기 스스로 판단해 제값을 받고 물건을 팔았으므로 도덕적 행동이다.
 ④ 바자지를 씌우지 않는 것은 의무에 맞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덕적 행동이다.
 ⑤ 정직해야 한다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아니므로 도덕적 가치가 없다.

2.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고통과 쾌락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지시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한다. 아울러 쾌락과 고통은 양적으로 계산 가능하며, 쾌락을 증진하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옳은 행위이다.

을: 우리의 규칙은 공리성에 근거하여 만들어졌고,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규칙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즉 개별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규칙의 준수 여부로 판단해야 하며, 그 규칙의 옳고 그름은 그것의 준수가 궁극적인 목적을 증진시키는지의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병: 두 가지 쾌락에 대해 똑같이 잘 알고 그 둘을 똑같이 즐기고 음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보다 높은 능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특정한 삶의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짐승이 누리는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해 준다고 해서 하급 동물이 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보 기 >

- ㄱ. 갑은 병과 달리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ㄴ. 을은 갑과 달리 개별 행위의 유용성보다 규칙의 유용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ㄷ. 병은 갑과 달리 모든 인간을 본래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
 ㄹ. 갑, 을, 병은 공리성에 근거해 도덕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3. 다음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 죽음은 현존재에게 가장 고유하고, 가장 극단적이며, 다른 가능성들에 의해 능가될 수 없고,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다.
- 죽음과 관련해 ‘비본래적’ 존재는 죽음으로부터 도피하려 하고, 세상 사람(평균인)들의 일반적 기준을 자신의 궁극적 가치로 받아들이지만, ‘본래적’ 존재로서 실존은 죽음을 자신에게 임박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그동안 집착했던 일상적인 가능성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자각한다. 이를 통해 현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죽음으로의 선구(先驅)’를 한다. 즉 죽음 앞에서 도피하지 않고, 그것을 용기 있게 인수하면서 자신의 본래적 가능성을 선택한다.

| 학생 \ 입장 | 갑 | 을 | 병 | 정 | 무 |
|---|---|---|---|---|---|
| 현존재는 죽음에 대한 자각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 √ | √ | | √ | |
| 현존재는 죽음으로의 선구를 통해 자신의 삶과 존재의 의미를 물을 줄 알아야 한다. | | | √ | √ | √ |
| 현존재는 죽음 이후 영혼이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 | | | √ | √ |
| 현존재는 누군가가 대체할 수 없는 자신의 죽음을 회피나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된다.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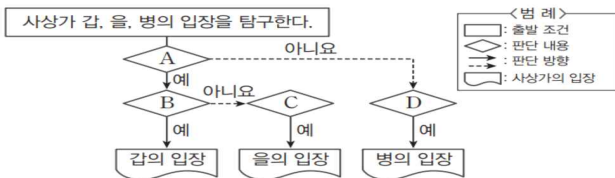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4. 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을 아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품성적 덕이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품성은 습관에서 발전하므로 사람들은 후천적인 지도 아래 특정한 방식으로 자주 움직임으로써 습관이 들고, 마침내 그렇게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을: 선의지는 그것이 생기게 하는 것이나 성취한 것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쓸 모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의욕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병: 공리의 원리란 자기 이익이 결려 있는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향에 따라서 각각의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이다.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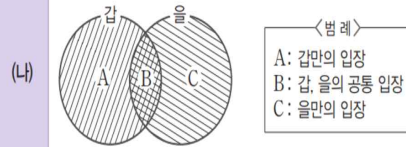
- ㄱ. A: 보편적 도덕 원리를 기준으로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해야 하는가?
- ㄴ. B: 타고난 품성적 덕을 발휘함으로써 공동체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가?
- ㄷ. C: 어떠한 행위가 그 자체로 옳기 때문에 그 행위를 행해야 하는가?
- ㄹ. D: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도덕 원리의 기반으로 삼아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5. (가)의 서양 사상이 갑, 동양 사상이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현자(賢者)는 삶을 도피하려 하지 않으며, 삶의 중단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삶이 그에게 해악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는 삶의 부재가 해악으로 생각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현자는 긴 삶이 아니라 가장 즐거운 삶을 향유하기를 원한다.

(가) 을: 생명이 와서 태어나는 것을 물리칠 수 없듯이, 그것이 떠나가 죽음을 맞는 것도 멈추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신체만을 길러 생명을 오래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슬픈 일이 아닌가? 세상의 일을 버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하면 생명이 되살아난다. 생명이 되살아나면 참된 생명이 실현된다.



< 보 기 >

- ㄱ. A: 죽음은 인간의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될 자연적 과정이다.
- ㄴ. B: 죽음에 대한 실존적 자각을 통해 사회 규범을 실천해야 한다.
- ㄷ. B: 죽음에 대한 고정 관념으로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 ㄹ. C: 죽음이 모든 존재의 원리인 도(道)에 근거함을 깨달아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6.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살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조건에 불만을 갖고 있을 뿐, 사실은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삶의 의지가 아닌 단지 자신을 파괴하려는 의지에 굴복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세계와 삶의 본질은 의지이므로 자살로 자기를 파괴하더라도 현상의 궁극 원인인 의지 그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지개를 이루고 있는 현상인 물방울들, 즉 개체들이 계속해서 교체 또는 사라지게 되더라도 그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자살이란 삶의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현상으로서의 자신의 육체를 자의적으로 파괴함으로써 살 자체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실험입니다.



- ① 삶에의 의지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
- ② 자살은 삶의 고통에 대한 해결이 아닌 도피일 뿐이다.
- ③ 자살은 생명을 파괴하려는 의지에 굴복하는 것일 뿐이다.
- ④ 자살은 개체만을 파괴할 뿐 의지 그 자체를 파괴하지는 못한다.
- ⑤ 삶에의 의지에 대한 부정은 현상의 궁극 원인인 신(神)에 대한 부정이다.

(7-8)갑,을은 서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절제 있는 행위를 해 봄으로써 절제 있게 되며, 용기 있는 행위를 해 봄으로써 용기 있게 되는 것이다. 품성적인 덕은 중용을 택하여 행동하는 성품으로, 지나침과 모자람의 악덕 사이의 중간이다. 즉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목적을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이 중간이자 최선이다.

을: 절제나 용기, 끈기와 같은 기질의 속성들도 틀림없이 여러 면에서 선하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천부적 재능이나 기질도 그것을 사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못하다면 지극히 악하거나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 이 세계에서나 이 세계 밖에서나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의지 뿐이다.

7. 갑, 을의 입장을 아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A : 도덕 법칙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기보다 상황에 맞는 품성적 덕을 발휘해야 한다.
 ㄴ. B : 행복을 추구하는 자연적 욕구에 근거해 절대적 도덕 원리를 확립해야 한다.
 ㄷ. B : 어떤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성의 작용이 있어야 한다.
 ㄹ. C : 도덕 법칙이 명령하는 행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경향성을 따라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8. 갑, 을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K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상황>

고등학생인 K는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다가 수해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고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려고 모아 둔 용돈이 있다는 사실이 떠오른 K는 수재민을 돕기 위해 그 용돈을 기부할지 고민이 되었다.

- ① 갑: 어려운 사람을 도울 경우 발생할 결과의 유용성에만 근거해 행동하세요.
 ② 갑: 자신의 욕구 충족보다 품성적인 덕을 발휘해 유덕한 행위를 실천하세요.
 ③ 을: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려는 자연스러운 감정에 근거해 기부하도록 하세요.
 ④ 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행위 원칙을 참고하여 결정하세요.
 ⑤ 갑, 을: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말고 오직 이성의 명령에 따라 행위 하세요.

9. 다음 사상가의 죽음에 대한 입장으로 옳은 것은?

현존재가 겪게 되는 객관적 사실로서 죽음은 아직 한계 상황이 아니며,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동물에게 한계 상황이란 있을 수 없다. 동물은 이에 대한 의식 능력을 결여하기 때문이다. ...(<중략>)... 종말 또는 죽음에 대한 고통은 지양될 수 없지만, 실존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극복할 수는 있다. 죽음에 직면하여 의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절망하는 것은 실존의 몰락일 뿐이다. 죽음이 단지 누구도 어쩔 수 없는 불행으로서 자기 절멸이라면 죽음은 더 이상 한계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실존의 가능한 심연을 일깨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참된 실존은 오직 절망으로부터 존재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을 얻는다. 죽음에 직면함으로써 삶의 깊이는 한층 깊어지고, 실존은 더욱 확실하게 자신을 깨닫는다.

- ① 죽음의 불안은 실존에게 극복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다.
 ② 죽음은 용기 있게 대면하는 실존에게 참된 깨달음의 계기이다.
 ③ 죽음은 참된 실존에게 모든 것의 소멸이라는 허무주의적 사태이다.
 ④ 죽음은 참된 실존에게 나의 죽음이 아닌 항상 누군가의 죽음이다.
 ⑤ 죽음의 불안이라는 한계 상황은 인간과 동물만이 경험할 수 있다.

10. (가)의 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행위의 도덕성은 선한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해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덕을 내면화하여 선한 사람이 될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덕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을: 행위의 도덕성은 공리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공리의 원리는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성에 따라 각각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병: 행위의 도덕성은 의무의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의해 규정된다. 이 법칙은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이나 우연적 환경에 근거하지 않으며,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무조건적이고 필연적 의무로 다가온다.

(나)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

<법례>
 □ 출발 조건
 ◇ 판단 내용
 → 판단 방향
 ≡ 사상가의 입장

< 보 기 >

- ㄱ. A : 보편적 행위 규칙의 준수보다 행위자의 내면적 품성에 주목해야 하는가?
 ㄴ. B : 타인을 배제한 개인의 행복 증진을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ㄷ. C :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가 산출할 쾌락과 고통의 양인가?
 ㄹ. D : 도덕적 행위는 의무로 부과되는 강제 법칙을 따르는 타율적 행위인가?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질문에 모두 옳게 대답한 것은?

갑: 쾌락과 고통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강력성, 지속성, 확실성, 원근성이다. 그리고 쾌락과 고통의 가치가 그것을 낳는 행위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다산성과 순수성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범위, 즉 쾌락과 고통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도 고려해야 한다.
 을: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고 한층 더 가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다른 모든 것을 평가할 때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을 평가할 때는 양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 질문 | 대답 | |
|---|---------------------------------------|-----|-----|
| | | 갑 | 을 |
| ① | 쾌락을 주는 행위는 선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는 악한가? | 예 | 예 |
| ② | 도덕적 행위의 실천과 사회적 행복의 실현은 양립 가능한가? | 예 | 아니요 |
| ③ | 행위를 평가할 때는 행위의 동기보다 결과를 중시해야 하는가? | 예 | 아니요 |
| ④ | 도덕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인가? | 아니요 | 예 |
| ⑤ | 쾌락을 계산할 때는 쾌락의 양과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가? | 아니요 | 아니요 |

12.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죽음이란 현존재가 스스로 떠맡아야만 하는 존재 가능성으로, 현존재 자신에게 가능성으로 눈앞에 닥쳐온다. 이 가능성에 의해 현존재는 자신의 세계 - 내 - 존재 그 자체에 관련되며, 이는 곧 그가 더 이상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가능성이기도 하다. 현존재는 죽음이 자신의 눈앞에 닥쳐올 때, 자신의 고유한 존재 가능에 전적으로 마음을 쓰고 몰입하며, 다른 현존재와 교류할 여지를 완전히 잃어버린다. 현존재의 고유한 가능성은 다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몰교섭(沒交涉)적 가능성인 동시에 가장 극단적인 가능성이다. 존재 가능으로서의 현존재는 죽음의 가능성을 추월할 수 없다. 죽음의 실존론적 가능성은 현존재가 본질적으로 스스로를 열어 보기 때문에, 그것도 스스로에 선행하는 방식으로 열어 보기 때문에 확인된다.

- ① 현존재는 실존 회복을 위해 죽음의 불안에서 도피해야 하는가?
 ② 죽음은 현존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므로 회피해야 할 대상인가?
 ③ 죽음 이후 사회적 구속에서 벗어나 참된 실존을 회복하게 되는가?
 ④ 현존재는 죽음의 가능성을 수용함으로써 고유한 자신을 발견하는가?
 ⑤ 현존재는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서만 죽음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는가?

13.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가), (나) 사상의 죽음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가) 생(生)이 있을 때 늙음(老)과 죽음(死)이 있고, 생이 없어질 때 늙음과 죽음도 없어진다. 늙음과 죽음이 다가올 때 가르침에 따라 선행을 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팔정도(八正道)를 따르면 늙음과 죽음이 소멸하나, 개의 행실을 하면 개로 태어날 것이고, 소의 행실을 하면 소로 태어날 것이다.

(나) 생사(生死)는 명(命)에 달려 있고, 부귀(富貴)는 하늘(天)에 달려 있다. 다만 군자는 이익이 될 만한 일을 보면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하고, 위태로운 일을 보면 목숨을 바칠 뿐이다. 뜻 있는 선비와 사람다운 사람은 살기 위해 사람다움을 해치지 않으며, 죽어서라도 사람다움을 완성한다.

㉡ 학생 답안

(가)는 ㉠ 삶과 죽음을 연기(緣起)의 관점에서 상호 연결된 과정으로 보며, ㉡ 죽음 이후 세계에서의 삶은 현세에서 스스로 지은 행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나)는 ㉢ 죽음과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한 관심보다 현세에서의 도덕적 삶이 더 중요하다고 보며, ㉣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가), (나)는 모두 ㉤ 세속적 가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삶과 죽음의 순환을 끊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4.(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완성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 | |
|-----|---|
| (가) | <p>갑: 도덕적 삶의 본질적인 핵심은 ‘우리가 어떤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이다. 즉 도덕적 개인은 무조건 규칙에 따르는 자가 아니라 훌륭한 개인,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개인은 특수한 상황에서 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p> <p>을: 지성, 기지, 판단력, 그리고 용기, 결단력, 끈기 같은 기질상의 속성들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성품이라고 일컫는 이러한 천부적 재능이나 기질도 그것을 사용하는 의지가 선택하지 못하면 악하거나 해로울 수도 있다. 선택지는 그것이 실현하거나 성취한 것 때문에, 또는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쓸모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은 일 자체로 선택한다.</p> |
| (나) | |

- ① A: 도덕은 행복 실현에 기여해야 비로소 가치를 지니는가?
- ② B: 인간을 목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위인가?
- ③ B: 바람직한 행위는 선한 성품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어야 하는가?
- ④ C: 의무에 맞는 행위는 모두 도덕적인가?
- ⑤ C: 도덕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인가?

15. 다음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죽음은 그때마다 현존재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존재 가능성이다. 현존재 자신은 죽음과 함께 자기의 가장 독자적 존재 가능성에 있어서 자기에게 다급하게 다가선다. 현존재의 죽음은 ‘더 이상 현존재일 수 없다’는 가능성이다. 현존재가 자기 자신의 이런 가능성으로서 자신에게 다급하게 다가설 때, 현존재는 완전히 자신의 가장 독자적 존재 가능성을 향해 지시받고 있다. 그렇게 자신에게 다급하게 다가설 때, 그에게는 다른 현존재에 대한 모든 교섭이 단절된다. 가장 독자적이고 물교섭적인 이 가능성은 동시에 가장 극단적 가능성이다. 현존재는 존재 가능성으로서 죽음의 가능성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리하여 죽음은 가장 독자적이고, 물교섭적이고, 뛰어넘을 수 없는 가능성으로서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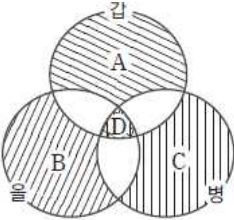
- ① 인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인식할 수 없는 존재인가?
- ② 인간은 죽음 이후에야 자신의 본질을 직시할 수 있는가?
- ③ 죽음에 대한 자각은 인간을 주체적으로 존재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가?
- ④ 인간과 동물은 자신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자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가?
- ⑤ 인간은 죽음의 가능성을 완전히 잇을 때 인간답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가?

1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윤리학은 뇌의 작동 방식을 탐구하는 신경 과학 분야의 방법론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도덕적 위기 상황에서 인간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약물을 통해 도덕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나) 윤리학은 진화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타적 행동 및 성품과 관련된 도덕성은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한 결과이다. 인간은 자기 생존과 번식 혹은 자기 유전자를 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타적 행위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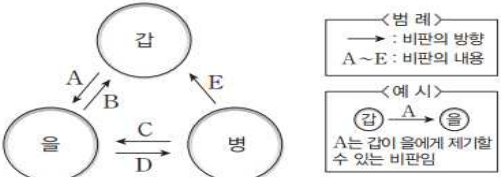
- ① (가)는 뇌를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여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가)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성의 역할을 과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나)는 도덕적 행위를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적용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본다.
- ④ (나)는 과학이 도덕성 형성 과정이 아닌 도덕적 삶의 방향을 설명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가), (나)는 윤리적 행위를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탐구 방법이 있다고 본다.

17.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 | |
|-----|--|
| (가) | <p>갑: 죽음으로 앞서 달려가 보는 순간에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자기의 고유한 죽음으로 달려가보는 것은 현존재의 준엄한 과제이다.</p> <p>을: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 있는데,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기 때문이다.</p> <p>병: 우리는 육체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영혼만을 사용하여 참된 실재를 인식할 수 있다.</p> |
| (나)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병만의 입장 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p> </div> |

- ① A: 죽음 이후에는 모든 영혼의 활동이 정지된다.
- ② B: 죽음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③ C: 죽음 이후에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 ④ D: 죽음 이후에도 불멸의 영혼이 존재한다.
- ⑤ D: 죽음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다.

18.(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E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가) | <p>갑: 행복은 양과 질 모두의 관점에서 가능한 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향유하는 것이다. 쾌락을 평가할 때 양만을 중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쾌락의 질도 고려해야 한다.</p> <p>을: 행위에 의해 생겨날 행복과 불행의 양이 결과를 평가하는 데 고려되는 유일한 요소이다. 옳은 행위란 불행 또는 고통의 양을 최소화하고 행복의 양을 최대화하는 것이다.</p> <p>병: 행복의 원리와 도덕의 원리를 구별하는 것이 곧 양자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순수한 실천 이성인 사람이 행복에 대한 모든 요구를 포기해야 할 것을 의욕하지 않는다.</p> |
| (나)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범례〉</p> <p>→ : 비판의 방향 A~E: 비판의 내용</p> <p>〈예시〉</p> <p>(갑) → (을) : A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div> |

- ① A: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같으며 양적 차이만 있음을 간과한다.
- ② B: 행위의 도덕 판단 기준이 행위의 동기와 무관함을 간과한다.
- ③ C: 행복은 곧 쾌락이며 불행은 쾌락의 결여를 의미함을 간과한다.
- ④ B, D: 행복의 추구가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에 위배됨을 간과한다.
- ⑤ C, E: 최대 행복의 원리가 도덕의 원리가 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19.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행위와 관련해서 지나침과 모자람 그리고 중간이 있다. 그런데 품성적 덕은 감정과 행위에 관련하고, 이것들 안에서 지나침과 모자람이 잘못을 범하는 반면, 중간적인 것은 칭찬을 받고 또한 올곧게 성공한다. 이 양자가 품성적 덕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품성적 덕은 중간적인 것을 겨냥하는 한 일종의 중용이다.

— < 보 기 > —

- ㄱ. 품성적 덕은 합리적 선택과 결부된 품성 상태이다.
- ㄴ. 모든 행위에는 그것에 적합한 중간적인 상태가 존재한다.
- ㄷ. 지나침과 모자람은 악덕의 특징이고 중용은 미덕의 특징이다.
- ㄹ. 유덕한 품성을 갖추려면 옳고 선한 행위를 습관화하여 내면화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 다음 윤리학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간의 도덕 현상 중에서도 특히 자유 의지는 인간의 영혼이나 자아의 실체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인지, 심리, 뇌의 진화론적 기제의 산물이다. 도덕적 책임과 자유 의지의 근원이라고 간주되는 도덕적 주체, 즉 자아는 진화의 과정을 겪은 뇌 활동의 부산물로 간주해야 한다.

— < 보 기 > —

- ㄱ. 인간의 도덕 현상을 유전적 진화의 산물로 이해해야 한다.
- ㄴ. 인간의 자유 의지는 비물질적인 영혼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이다.
- ㄷ. 인간의 자유 의지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 ㄹ. 인간은 자유 의지를 지닌 존재이지만 자유 의지에 의한 자유의 행사는 제한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1.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 (가) | <p>갑: 육체의 도움을 받아 영혼이 무엇을 탐구하려 한다면 영혼은 길을 잃을 것이다. 영혼은 육체를 무시하고 최대한 독립했을 때 최상의 사유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동안은 될 수 있는 대로 육체와의 모든 결합을 피하고, 신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때까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 나가야만 올바른 인식에 가장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p> <p>을: 실재하는 것은 오직 원자들과 그것들로 이루어진 복합체들뿐이다. 영혼도 미세한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물체일 뿐이다. 영혼은 그것을 보호해 주는 몸이 분해되면, 자신을 구성하고 있던 원자들 자체도 흩어져, 더 이상 이전에 가졌던 능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죽음과 함께 영혼은 감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p> |
| (나) | |

- ① A: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해방되는 것이다.
- ② A: 죽음은 영혼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③ B: 죽음은 참된 행복을 위해 겪어야 할 고통에 불과하다.
- ④ C: 죽음은 원자의 분해로서 모든 인식을 불가능하게 한다.
- ⑤ C: 죽음의 본질을 알면 사후의 삶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된다.

2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현존재는 죽음이 자신의 눈앞에 닥쳐올 때, 자신의 고유한 존재 가능에 전적으로 마음을 쓰고 몰입하며, 다른 현존재와 교류할 여지를 완전히 잃어버린다. 현존재의 종말로서 죽음은 현존재의 가장 독자적이고, 물교섭적이고, 확실하고, 건너뛸 수 없는 가능성이다. 현존재는 죽음을 향해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비본래적 실존에서 벗어나 참된 실존을 찾게 된다.

| 학생 관점 | 갑 | 을 | 병 | 정 | 무 |
|--|---|---|---|---|---|
| 죽음에 대한 자각은 현존재로서 인간만이 할 수 있다. | √ | | | √ | √ |
| 죽음에 직면한 현존재는 타인과 교류를 단절하게 된다. | √ | √ | | √ | |
| 죽음으로 앞질러 달려 나아감으로써 본래적 실존의 가능성이 입증된다. | | | √ | √ | √ |
| 죽음은 현존재가 주체적이고 성실한 삶을 살기 위해 회피해야 할 대상이다. | | √ | √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23.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생이란 고통의 연속이며, 그 고통의 원인은 생에 대한 맹목적 의지에 있습니다. 의지의 개별적 현상을 제멋대로 파괴하는 자살은 의지의 부정으로서의 자살과는 거리가 멀며, 이러한 자살은 생에 대한 맹목적 의지를 강력하게 긍정하는 현상입니다. 부정의 본질은 삶의 고통이 아니라 삶의 향락을 혐오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살자는 삶을 원하지만, 그거 처한 삶의 조건에 만족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결코 생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현상을 파괴하면서 단지 삶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 ① 의지의 부정으로서의 자살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② 삶의 고통의 요인은 삶에 대한 맹목적 의지에 있지 않다.
- ③ 삶에 대한 맹목적 의지를 소멸시키려면 죽음을 택해야 한다.
- ④ 삶에 대한 의지에서 나오는 자살은 삶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⑤ 고통을 피하기 위한 자살만이 생에 대한 맹목적 의지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

2-2

| | |
|-----------|-----------|
| 5 4 3 3 3 | 5 1 2 2 1 |
| 1 4 5 3 3 | 4 3 5 4 4 |
| 3 4 4 | |

1.. 갑의 입장에서 을의 주장에 대해 제기할 반론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심장이나 폐의 기능이 회복할 가능성이 없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한다. 비록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했다고 하더라도 인공적인 기계 장치 등을 이용하여 짧은 시간이나마 호흡이 가능하고 심장 박동이 지속되면 아직 죽음에 이른 것은 아니다.

을: 뇌가 질병이나 외상에 의해 그 조직이 파괴되어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고 그것이 결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뇌 기능의 완전 정지 상태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치료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 가족들의 고통을 줄여 줄 수 있다.

< 보 기 >

- ㄱ. 인간은 실용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존엄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 ㄴ.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기 이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ㄷ.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치료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임을 알아야 한다.
- ㄹ. 인간의 생명 활동은 심장을 비롯한 다양한 장기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짐을 알아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 (가)의 입장에서 제시할 (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가) | 온전한 인간 존재가 아닌 배아나 태아와 달리 권리 행사 주체인 온전한 인간은 누구나 생명권을 지니며, 이 생명권을 침해하는 공격자에 대해서는 권리 보호의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행동을 공격자에게 가할 수 있다. 여기서 공격자가나를 해하려는 의도가 없느냐의 도덕적 유죄성 물음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나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느냐의 물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생명에의 위협이 어떤 형태를 띠어야 하는 것도 필수적이지 않으며 더구나 그 행위가 도덕 행위자의 행위일 필요가 없다. |
| (나) | 태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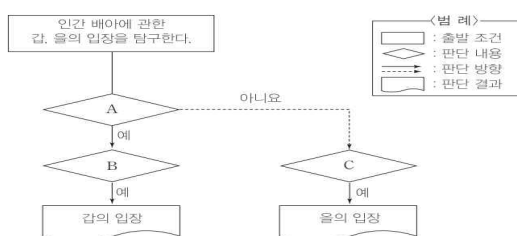
- ① 예 - 정당방위 차원에서 임신부는 낙태할 수 있다.
② 예 - 여성은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므로 낙태할 수 있다.
③ 예 - 여성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낙태할 수 있다.
④ 아니요 - 인간 존재인 태아의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⑤ 아니요 - 무고한 인간 존재인 태아를 해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3. 다음은 임상 시험과 관련된 원칙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임상 시험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 은/는 어린이, 임신부,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어른, 그리고 죄수와 같은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는 것과 관련된다.
2. 선행의 원칙은 해를 입히지 말 것과 가능한 한 이익을 극대화하고 해는 극소화할 것이라는 두 개의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익은 좋은 연구 디자인의 사용과 유능한 시험자, 그리고 적절한 위험/이득 비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3. ㉡ 은/는 연구와 관련이 없는 요건에 기초하여 부당하게 피험자를 선정하거나 제외하지 말아야함을 의미한다. 피험자 선정은 적절한 기준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 ㉠의 설명 | ㉡의 설명 |
|---|-------------------------|-------------------------|
| ① | 해악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해야 한다. |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
| ② | 사회적 효용성을 최대화해야 한다. |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③ |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 해악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해야 한다. |
| ④ |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 해악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해야 한다. |
| ⑤ |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

4.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 ~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
|-----|--|
| (가) | <p>갑 : 모든 인간이 배아에서 생을 시작한다는 사실이 배아가 인격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아가 발생 중인 인간 생명이기 때문에 배아를 존중해야 한다. 그렇지만 배아와 사람이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목적이 중대하고 가치 있는 경우에는 배아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p> <p>을 : 수정부터 출생까지의 과정에서 인격이 정확히 언제 생기는지 결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배아를 발달한 인간과 동일한 존재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오로지 인간성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발달 초기 단계인 인간의 생명도 존중받아야만 한다. 인간 배아를 이용하는 연구의 허용은 결국 사람들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좀 더 나쁜 행위를 허용하게 된다.</p> |
| (나) |  |

< 보 기 >

- ㄱ. A: 배아는 도덕적 존중의 대상인가?
 ㄴ. B: 배아는 언제나 조작할 수 있는 생명인가?
 ㄷ. B: 배아는 과학적 연구를 위해 이용될 수 있는가?
 ㄹ. C: 배아는 정상적인 성인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여성은 언제나 물질을 제공하고, 남성은 물질을 형상화시키는 방식을 제공한다. 그것이 양성(兩性)의 특수한 성격이다. 그래서 육체적인 부분, 즉 몸은 여성에게서 오고 영혼은 남성에게서 온다. 형상은 본래 물질보다 더 선하고 우월하기 때문에 우월한 것은 열등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을 :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자다움은 시대와 함께 변화될 수 있는데, 남성들이 채택하는 표준에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변화된다. 그러나 한 인간이라는 사실은 인간적 존재들을 서로 구별하는 모든 특수성보다도 무한히 중요하다. 우월성은 결코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다.

병 : 여성과 남성의 도덕성은 어린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를 인식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여성의 도덕성 발달은 '배려의 관점'에서 진행되며, 남성의 도덕성 발달은 '정의의 관점'에서 진행된다. 여성이 타인의 입장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은 남성의 도덕적 능력에 비해 열등하지 않다.

- ① 갑은 양성이 각각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으나 남성이 우월하다고 본다.
 ② 을은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와 제도가 여성들을 열등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본다.
 ③ 병은 추상적 보편 원리를 따르는 능력과 공감 능력은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고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성(性) 정체성은 자연적 본성에 속하지만 남녀는 서로 평등하다고 본다.
 ⑤ 을과 병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남성이 더 우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6.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p>갑: 과학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 유전자 조작을 통한 질병의 예방과 종의 개선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하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 유전자의 조작과 변형은 미래 세대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개입의 결과가 미래 세대에게 이익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p> |
| (가) | <p>을: 인간 유전자 조작에서 예방적 조작과 개량적 조작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한 개체를 본질적으로 뒤바꾸는 개량적 조작, 즉 완벽한 외모나 뛰어난 두뇌 등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작은 미래 세대에 대한 권리 침해가 아니라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허용되어야 한다.</p> |
| (나) |  |

- ① A: 유전적 결함을 치료하기 위한 유전자 조작은 허용되어야 한다.
- ② A: 정확한 결과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만 유전자 조작을 허용해야 한다.
- ③ B: 유전자 조작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미래 세대를 고려해야 한다.
- ④ B: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모든 행위는 미래 세대에 대한 권리 침해이다.
- ⑤ C: 인간의 다양한 능력 개선을 위한 유전자 조작은 허용되어야 한다

7. (가)의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 ~ 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인간의 성(性)은 사랑을 통해 동물적 차원을 벗어나서 인격적 차원으로 고양된다. 사랑은 인간의 성이 도덕적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따라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의 성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을: 인간의 성은 사랑하는 남녀가 혼인이라는 사회적 승인을 거쳐 출산과 관련해 이루어질 때 정당화된다. 따라서 혼인을 통해 출산에 기여하는 성만이 성의 진정한 가치를 지니므로, 생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성이 도덕적이고, 성 그 자체를 위한 성은 수단이 목적으로 뒤바뀐 것이므로 비도덕적이다.

병: 인간의 성은 쾌락 추구 그 자체가 목적이다. 성적 쾌락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유로운 성적 쾌락 추구를 방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고 아무런 제약 없이 성적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성적 자유는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한계 내에서 허용되며, 이것이 도덕적 성의 기준이 된다.

(나)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

```

graph TD
    A{A} -- 예 --> B{B}
    A -- 아니요 --> D{D}
    B -- 예 --> G[갑의 입장]
    B -- 아니요 --> C{C}
    C -- 예 --> Y[을의 입장]
    C -- 아니요 --> D
    D -- 예 --> B[병의 입장]
    
```

<범례>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 : 판단 방향
 □ : 갑, 을, 병의 입장

< 보 기 >

- ㄱ. A: 성이 도덕적이기 위해서는 성을 혼인의 틀 내로 제한해야 하는가?
- ㄴ. B: 사랑은 인간의 성이 도덕적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될 수 있는가?
- ㄷ. C: 성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출산에 대한 책임과 양육의 안정성인가?
- ㄹ. D: 성적 쾌락의 추구는 그 자체로 좋지만 일정한 도덕적 제약이 따르는가?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8.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양(陽)은 군자이고, 음(陰)은 소인이다. 양을 군자로 여기고 음을 소인으로 여기는 것은 강한 것은 선이고 유약한 것은 악이라는 것으로부터 미루어 나아가, 이로써 덕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즉 양인 남자는 강하며 선의 지향을 강조하고, 음인 여자는 유약하여 악함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강함을 속성으로 하는 남자가 집안의 법도를 세워야 한다.

을: 양(陽)이란 말은 원래 '햇볕', 음(陰)이란 말은 '그늘'을 뜻하였으나 후에 점점 발전되어 음양은 우주의 두 원리 또는 원동력으로 간주되었다. 즉 양은 남성적인 것, 능동성 등을 나타내고, 음은 여성적인 것, 수동성 등을 뜻하게 되었다. 음양이 서로 합일하여 만물이 화육되고 번영되며, 남녀의 정기가 결합되어 만물이 화생한다. 남녀의 결합을 통해 자녀를 얻게 되는 것처럼 음양의 상호 보완을 통해 만물이 생성되는 것이다.

- ① 갑은 남녀가 집안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소사를 결정한다고 본다.
- ② 갑은 집안 내 부부의 역할은 후천적 차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본다.
- ③ 을은 만물의 화육은 음양이 완전히 독립성을 유지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
- ④ 을은 음양의 원리를 근거로 부부가 서로를 보완적 관계로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에 비해 을은 남녀의 차이를 바탕으로 한 남녀 간의 위계를 더 강조한다.

9. 갑, 을, 병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성적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는 행위는 부도덕하다. 성이란 단지 사랑을 전제로 한 결혼에 따라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도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을 : 성적 관계가 도덕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랑이 있는 성이 반드시 결혼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육체적·정서적 교감을 통해 합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병 : 성적 관계는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합의한 성인들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자유로운 합의 외에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

| | 비판 방향 | 비판 내용 |
|---|--------|--|
| ① | 갑이 을에게 | 사랑을 전제로 할 때에만 성적 관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
| ② | 갑이 병에게 | 자발적 동의는 성적 관계가 허용되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모르고 있다. |
| ③ | 을이 갑에게 | 결혼에 따른 출산이 전제되지 않은 성적 관계는 비판받아야 함을 모르고 있다. |
| ④ | 병이 갑에게 | 성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 가능한 것임을 모르고 있다. |
| ⑤ | 병이 을에게 | 사랑이 없어도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해 성적 관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10. (가) 사상의 관점에서 (나)의 ㉠에 대해 제시할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름[名]과 그 내실[實]이 일치되어야 한다. 즉 임금은 임금, 신하는 신하, 부모는 부모, 자식은 자식 노릇을 해야 한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감히 남에게 악하지 않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감히 남에게 오만하지 않는다. |
| (나) | ㉠ 은/는 나이 든 사람[老]을 나이 어린 사람[子]이 떠받들고 있는 형상으로, 상하(上下) 인간관계의 질서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모님을 좋아하고 이롭게 하며, 선조의 뜻을 이어받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

< 보 기 >

ㄱ. 부모 자식 간에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천륜(天倫)을 바탕으로 하는 덕이다.
 ㄴ. 부모에 대한 지극한 마음이 다른 모든 인간관계로 확장되어 나가는 덕이다.
 ㄷ.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으로 종적(縱的) 인간관계의 근본이 되는 덕이다.
 ㄹ.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예를 다하는 것으로 돌아가신 후에는 실천이 끝나는 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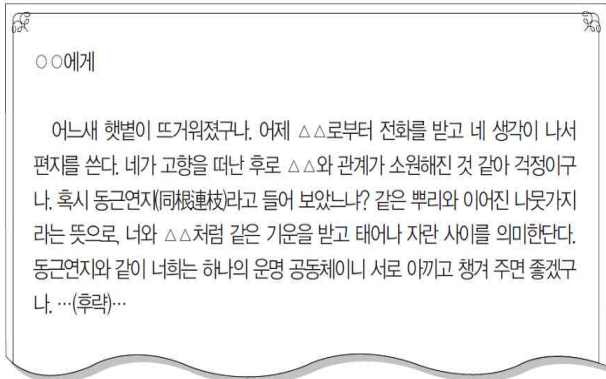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질문에 모두 바르게 대답한 것은?

갑: 지각, 욕구, 기억과 미래에 대한 생각 그리고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가진 존재들은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inherent value)를 지닌다. 최소한 몇몇 포유류를 포함한 이들은 목적적 존재로 대우받아야 한다.
 을: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들은 이익을 갖는다. 우리는 그들을 동등하게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만 평등의 원리는 평등한 또는 동일한 처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① 모든 자연의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가?
 (갑) 예 (을) 예
 ② 성장한 포유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가?
 (갑) 예 (을) 예
 ③ 동물과 달리 인간만이 도덕적 권리를 갖고 있는가?
 (갑) 예 (을) 아니요
 ④ 도덕적 지위의 소유 여부는 쾌고 감수 능력에 의해 판정해야 하는가?
 (갑) 아니요 (을) 아니요
 ⑤ 단지 인간의 편의를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갑) 아니요 (을) 예

12. 다음 가상 편지에 제시된 ○○와 △△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로 경쟁과 대립을 하면서도 함께 정(情)을 나누는 관계이다.
- ② 서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勸勉)하는 관계이다
- ③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부모에 대한 효(孝)를 실천하는 관계이다.
- ④ 서로 항렬(行列)이 다르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관계이다.
- ⑤ 서로에 대한 마음의 확대를 통해 봉우(朋友) 간 윤리의 토대를 제공하는 관계이다.

1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폭군이 아니라면 강제로 빼앗을 수 없는 인간의 권리를 동물이 획득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피부 색깔이 검다는 이유로 인간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프랑스 사람들은 이미 자각하고 있다. 언젠가는 다리가 몇 개인지, 피부가 털투성이인지, 또는 꼬리뼈가 퇴화했는지 등의 차이 때문에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존재를 학대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 (중략) ...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성을 갖는가, 그들이 말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이다.

을: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적어도 이익 관심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예를 들어 돌맹이는 이익 관심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쥐는 차여서 길에 굴러다니지 않을 이익 관심을 분명 갖고 있다. 왜냐하면 쥐는 차일 경우 고통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 ① 갑은 동물이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지위와 권리를 지닌다고 본다.
- ② 을은 모든 생명을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공리주의가 아닌 의무론의 관점에서 동물의 복지를 고려한다.
- ⑤ 갑, 을은 동물에게 불필요하게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14.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유전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유전자 치료는 크게 체세포 치료와 생식선 치료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유전자 치료만이 유전적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을: 동의합니다. 다만 체세포 치료는 환자 개의 신체 세포에 영향을 주므로 허용되지만, 생식선 치료는 개인은 물론 후세대에게까지 영향을 주므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갑: 아닙니다. 그러한 체세포 치료뿐만 아니라 생식선 치료까지 허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후세대로 이어져 인류 전체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생식선 치료는 변경되지 않은 유전자를 가질 후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며, 유전적 다양성을 감소시켜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습니다.

- ① 생식선 치료가 유전자 치료의 범주에 포함되는가?
- ② 유전자 치료는 유전적 질병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인가?
- ③ 생식선 치료는 개인뿐만 아니라 후세대에 영향을 주는가?
- ④ 유전적 질병의 치료를 위해 생식선 치료를 허용해야 하는가?
- ⑤ 후세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유전자 치료를 허용해야 하는가?

15.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부모는 자녀 출산에 있어 선택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따라서 유전자에 대한 치료 목적의 의학적 간섭은 물론이고 유전자 개량을 위한 유전자 조작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을: 유전자에 대한 치료 목적의 의학적 간섭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유전자 개량을 위한 유전자 조작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갑: 아닙니다. 유전자 조작에 의해 개량된 능력을 갖고 태어난 미래 세대는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얻어 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생학적 조치를 통해 미래 세대가 동의하지 않은 삶을 살도록 기획하는 것은 그들로부터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 ① 유전자에 대한 어떠한 인위적인 개입도 금지되어야 하는가?
- ② 부모는 자녀 출산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해야 하는가?
- ③ 부모는 유전자 개량을 통해 미래 세대의 삶을 기획해야 하는가?
- ④ 미래 세대의 능력 향상을 위한 우생학적 조치를 허용해야 하는가?
- ⑤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개량된 미래 세대는 자유를 박탈당하는가?

16.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조작 기술은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어야 합니다. 질병 극복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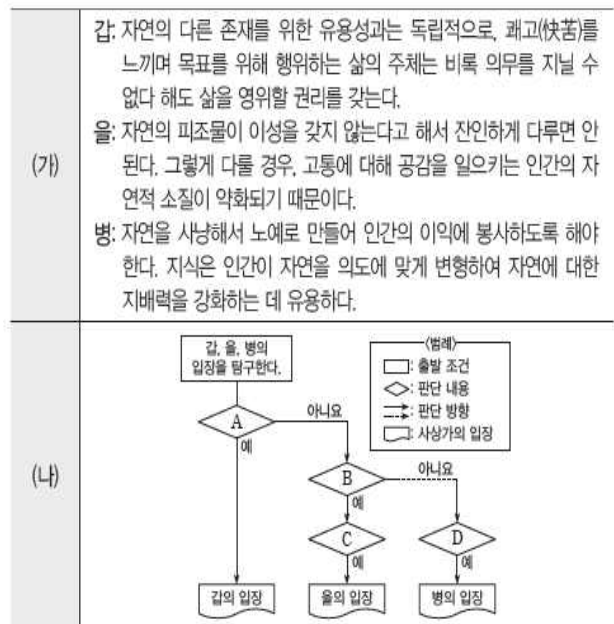
을: 네, 동의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넘어 우생학적 목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유전자 조작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치료 목적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갑: 치료를 넘어선 국가 차원의 우생학은 부당하지만 개인 차원은 다릅니다. 외모에 대해 성형의 자유를 지니듯이, 우리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자질을 강화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닙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자질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고비용 의술로 특정 계층만이 이용 가능해 생물학적 불평등을 낳고, 이는 곧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① 질병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 ② 치료 목적의 유전자 조작은 선을 산출할 수 있는가?
- ③ 국가는 치료를 넘어선 우생학적 유전자 조작을 해도 되는가?
- ④ 유전자 조작 기술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가?
- ⑤ 자질 강화를 위한 개인 차원의 유전자 조작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17.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A: 인간이 아닌 동물도 권리를 지닐 수 있는가?
- ㄴ. B: 자연 안의 어떠한 존재도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가?
- ㄷ. C: 인간만이 도덕적 의무를 실천할 능력을 소유하는가?
- ㄹ. D: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이해하여 자연을 지배해야 하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동물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동물 실험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면, 동일한 지적 수준에 있는 인간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실험에도 동일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쪽은 우리 종의 구성원이고, 다른 한쪽은 아니라는 차이에 호소하는 것은 옹호될 수 없는 편견에 불과하다.

— < 보 기 > —

- ㄱ. 동물의 이익 관심을 고려하지 않는 동물 실험은 부당한가?
 ㄴ. 실험실 동물을 착취하는 것은 종 차별주의적인 행위인가?
 ㄷ.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실험을 금지해야 하는가?
 ㄹ. 인간과 동일한 권리들을 지닌 동물을 실험하면 안 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9.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그대 무리 중 정직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양을 몰래 훔친 것을 증언했지만, 우리 무리 중 정직한 사람은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 그 사실을 숨겼네. 정직은 그 속에 있다네.
 · 자식은 부모가 부르시면 빨리 대답하여 늦지 않도록 한다. 부모가 연세 드시면 늦게 귀가하지 않는다. 부모가 병환 중이시면 자식은 얼굴을 환하게 하지 않고, 웃되 잇몸을 보이는 데 이르지 않으며, 노하되 꾸짖는 데 이르지 않는다.

- ① 부자유친(父子有親)의 본질은 집단과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② 부자(父子) 간 정직은 친애[愛]보다 올바름[義]을 우선해야 한다.
 ③ 자식은 부모의 의중을 살펴서 언행을 삼가며 공대(恭待)해야 한다.
 ④ 부모를 위하여 자식은 결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서는 안 된다.
 ⑤ 효의 정신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국한하여 적용해야 한다.

20.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결혼은 당사자 간의 애착과 계약에서 출발한다. 가족은 하나의 인격이며 인륜적 정신이다. 부부는 사랑의 감정으로 실체적 통일을 이루고 자녀를 통해 객관성을 지닌 결합의 전체를 이룬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 자신들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한편 자녀가 법적 인격과 자신의 재산을 갖추어 가정을 꾸릴 자격이 생길 때 가족의 해체가 시작된다.

— < 보 기 > —


- ㄱ. 가족은 부모와 자식이 결합된 인격적인 공동체이다.
 ㄴ. 어린 자녀는 부모가 간섭할 수 없는 개별적 존재이다.
 ㄷ. 부부는 자신들의 자녀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다.
 ㄹ. 결혼은 남녀 간의 법적 계약이 아니라 애착으로 성립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 1 5 5 4 3 3 4 5 1
 2 4 5 4 5 5 1 4 3 1

1. 그림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환자를 자식처럼 온정적으로 대우해 왔던 의사의 부권주의는 환자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원칙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되었고, 이는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라는 원칙으로 확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의료 상황에 대한 지식과 경험적 측면에서 볼 때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환자의 의사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의사에게 더욱 더 충분한 설명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환자에게 특정 의료 행위를 설명하고, 환자가 이를 이해한 후 해당 의료 행위를 허락하거나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환자의 자기 결정에 대한 존중의 참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 보 기 >

ㄱ.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 행위에 대해 충분히 고지할 의무가 있는가?

ㄴ. 환자는 자신에 대한 의료 행위에 대해 조건 없이 동의해야 하는가?

ㄷ. 의사와 환자 간 정보 비대칭성은 부권주의를 제약하는 핵심 요소인가?

ㄹ. 환자는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 자율적 결정권을 갖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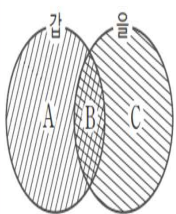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환자는 하나의 인격이며, 따라서 의사의 충분한 설명에 근거해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에서 치료 계획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의사는 환자가 의사의 의료적 개입에 대해 자율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환자에 대해 의료적 개입을 해야 한다.

(가) 을: 환자가 심각한 상태의 위험에 처해 있고, 이 상태가 방지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의사는 환자의 자발적 거부 의사(意思)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상태를 방지할 적극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환자의 자율적 선택권에 대한 존중은 의사의 도덕적 의무이지만, 환자의 더 큰 이익을 위한 의사의 처치 또한 의사의 도덕적 의무이다.

(나)



< 보 기 >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 보 기 >

ㄱ. A: 의사는 환자의 이익을 명분으로 환자의 결정권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

ㄴ. B: 의사는 해악 금지의 원칙을 자율성 존중의 원칙보다 우선해야 한다.

ㄷ. B: 의사는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에서 내린 환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ㄹ. C: 의사는 환자의 자발적 거부에 반하는 적극적 선행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 갑, 을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신(神)의 섭리와는 무관하게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삶이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 지만, 이것이 의식이 없는 초기 단계의 생명은 존중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만한 적절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잉태에서 출산에 이르는 과정 중 어느 지점이 인간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한, 삶의 시작인 배아도 성인처럼 침해받지 않을 가치와 권리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을: 오래된 메타세쿼이아가 존중받는 이유는 그것이 인격체는 아니지만, 그것을 경외할 만한 아름다운 자연물로 대하며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존중하는 것과 그것 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은 양립할 수 있다. 배아 또한 인격체는 아니지만 경외할 만한 자연물로서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치료 증진이라는 고귀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인간 존재와 동격으로 여겨야만 그것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① 자율성과 합리성을 지닌 존재만이 도덕적 권리를 갖는가?
 ② 지각과 의식 능력이 없는 배아도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③ 배아를 파괴하는 행위와 인간을 살해하는 행위는 같은 것인가?
 ④ 배아도 인간처럼 신(神)이 부여한 신성한 영혼을 지닌 존재인가?
 ⑤ 배아가 존중받아야 할 이유는 배아가 곧 인간이라는 점 때문인가?

4.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배아는 불가침의 권리를 갖지 않지만, 임의로 사용해도 좋은 대상은 아니다. 또 배아를 인간과 동격으로 여겨야만 배아를 존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생명을 자연의 숭고한 선물로 받아들이면, 배아에 대해 경외감을 지니면서도 착상 전 배아로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을: 배아와 인간은 그 발달 단계는 다르지만 동일한 단일의 실재이므로 사물처럼 수단으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배아는 인격체로서의 특성을 갖는 인간 존재로 발달하는 인간 생명체이다. 우리 중 누구도 한번은 배아가 아닌 적이 없다는 사실은 배아와 인간이 동등한 존엄성을 지닌다는 것을 함의한다.

(나)

< 보 기 >

- ㄱ. A: 생명을 지닌 존재로서 배아는 존중의 대상인가?
- ㄴ. B: 배아의 도덕적 지위는 인격체가 갖는 도덕적 지위와 동등한가?
- ㄷ. B: 질병을 치료할 목적의 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허용될 수 있는가?
- ㄹ. C: 배아에서 인간이 되는 과정은 경계가 없는 연속적인 과정인가?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5.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인간은 분리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즉 합일체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사랑을 하는데, 자신을 타인의 일부로 만들거나 타인을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사랑은 미숙한 사랑일 뿐이다. 성숙한 사랑은 두 존재가 하나로 되면서도 여전히 둘로 남을 수 있는 사랑이다.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다. ... (중략)... 주는 것은 자신의 잠재적 능력의 최고 표현이다. 준다는 행위 자체에서 나는 나의 힘, 나의 능력을 경험한다.

| 학생 | 갑 | 을 | 병 | 정 | 무 |
|---|---|---|---|---|---|
|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다. | V | | V | V | |
| 진정한 사랑은 자신과 타인을 결합시키는 능동적인 힘이다. | | V | V | | V |
| 진정한 사랑은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것을 주는 활동이다. | | V | | V | V |
|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개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합일을 이루는 것이다. | V | | | V | V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6.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사랑이란 한 아름다운 몸에서 모든 아름다운 몸으로, 몸의 아름다움에서 지식의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아름다움 자체를 볼 수 있다면 더이상 특정한 아름다움에 예속되지 않을 것이다.
- 몸으로 임신하는 자들이 자식을 낳듯, 영혼으로 임신하는 자들은 지혜와 미덕을 낳으려 한다. 그들은 미덕을 함께 낳고 기를 사랑할 존재를 찾는다. 정신적으로 임신한 자는 정신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사람과 사귀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만난 이들은 미덕에 관한 담론을 주고받으며 불멸의 가치를 공유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식을 공유하는 부부보다 더 긴밀한 유대와 더 두터운 우정을 갖는다.

< 보 기 >

- ㄱ. 육체적 사랑은 정신적 사랑으로 이어질 수 없다.
- ㄴ. 아름다움 자체를 볼 수 있는 사랑을 지향해야 한다.
- ㄷ. 덕을 함께 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
- ㄹ. 사랑이 아닌 지혜를 추구하는 정신적 활동을 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 동양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명덕(明德)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몸을 닦고, 그 몸을 닦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한다.
●“선생께서는 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서경에서 말하기를 ‘효일지니! 오직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으며,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정치에 확산시켜 나가라.’ 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 정치인데 어찌 정치에 실제로 종사해야만 곧 정치를 한다고 할 수 있겠소.”

— < 보 기 > —

ㄱ. 가족 간의 친애를 버려야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
ㄴ. 가족을 다스리는 원리는 국가를 다스리는 원리와 다르지 않다.
ㄷ. 가족과 국가를 잘 다스리려면 먼저 자신부터 수양을 해야 한다.
ㄹ. 가족 공동체처럼 국가 공동체도 도덕을 바탕으로 이끌어져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8. 다음 입장에서 지지할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간을 서사적 존재로 볼 경우 인간은 자연적 의무와 자발적 의무를 넘어 특수한 의무로서 연 대의 의무를 져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소속된 자아로서의 도덕적 고민, 그리고 내 삶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포함된다는 인식에서 나온다. 이러한 연대의 의무를 늙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보살핌의 의무와 연결지어 보면, 이러한 의무는 부모가 우리에게 혜택을 준 것에 대한 보답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나의 자발적 동의에서 나온 의무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 < 보 기 > —

ㄱ.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는 상호 합의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다.
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는 연대와 소속의 의무로부터 나온 것이다.
ㄷ.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는 부모를 넘어 만인을 대상으로 한 의무이다.
ㄹ.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는 보은의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의무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9.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인간의 배아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된다. 인간으로서의 능력이 직접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그 능력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 생명을 대상화시키는 배아 대상 연구는 허용되면 안 된다.

을: 인간의 배아는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인간 존재라고 볼 수 없다. 배아는 사물과 다르며 인간으로 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므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인간과 같은 존엄한 존재는 아니다. 따라서 불치병 치료와 같은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한 배아 대상 연구는 허용될 수 있다.

병: 인간의 배아는 인간 생명을 산출할 잠재성을 지니기는 하지만 성인과 같은 판단력과 사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볼 수 없다. 즉 배아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므로 배아 대상 연구는 전면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 < 보 기 > —

ㄱ. 갑은 배아와 성인이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고 본다.
ㄴ. 갑, 을은 인간 종의 개량만을 목적으로 하는 배아 대상 연구는 반대해야 한다고 본다.
ㄷ. 갑은 병과 달리 배아의 잠재성만으로 배아는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ㄹ. 병은 을과 달리 배아에 대한 존중과 배아 대상 연구는 병행될 수 있다고 본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0.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여자는 남자와의 관계에 따라 한정되고 달라지지만, 남자는 그렇지 않다. 남자는 ‘주체’이고 ‘절대’이지만 여자는 ‘타자(他者)’이다. 여자는 본질적인 것에 대해 비본질적인 것이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자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성적으로 우리의 눈에 별개의 것으로 비쳐진다 해도, 그것은 여자 아이의 본능이 그 아이를 수동성과 모성애에 어울리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그 인생의 직분을 떠맡도록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중략)… 주어진 현실 세계에서 자유의 승리를 가져오느냐의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이러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남녀가 서로 간의 구별을 초월해 분명한 우애를 나누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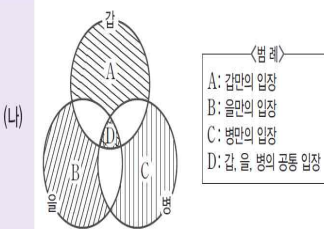
< 보 기 >

- ㄱ. 여성이 남성에게 예측된 존재로 규정될 때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 인식된다.
- ㄴ. 여성이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을 회복할 때 남녀 사이의 평등이 가능해진다.
- ㄷ. 여성이 지닌 부조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여성 자신의 각성도 필요하다.
- ㄹ. 여성은 남성과 생물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는 정당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1. (가)의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가) 갑: 성의 자연적 목적은 부부의 출산이며, 부부의 출산에 기여하는 것만이 성의 진정한 가치이다. 따라서 성은 결혼을 한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출산 또는 생식을 위한 도구적 가치만을 가진다.
- 을: 성은 사랑이 전제될 때만 도덕적으로 옳다. 사랑은 인간적 성의 고유한 가치이고, 인간의 성이 특별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도록 만들어 준다. 인간의 성은 사랑을 통해 동물적 차원을 벗어나 인격적 차원으로 고양된다.
- 병: 성은 쾌락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무제한적인 성적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악 금지의 원리와 자율성 존중의 원리에 입각한 성적 쾌락의 추구가 정당화될 수 있다.



< 보 기 >

- ㄱ. A : 결혼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성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
- ㄴ. B : 성은 출산과 관련되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 ㄷ. C : 사랑하는 사람 간의 자율적 합의에 근거한 성행위는 바람직하다.
- ㄹ. D : 성과 관련하여 도덕적 허용과 금지의 기준이 존재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2.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우리는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면 사랑은 아마도 하나의 사물로서 획득되고 소유될 수 있는 어떤 실체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랑이라는 사물은 없다. 사랑이란 그 대상이 인간이든 나무이든 어떤 이념이든 간에, 누군가를 배려하고자 하며 그에게 몰입하고 그 존재를 입증하며 그를 보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사랑은 서로를 소생시키며 서로의 삶에 생동감을 증대시킨다. 이처럼 사랑은 서로에게 소생과 생장을 낳는 과정이다.



- ① 사랑은 일방적 강요가 아닌 쌍방향적 소통의 과정임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 ② 사랑은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 쟁취되어야 할 대상임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 ③ 상대에 대한 집착은 사랑에서 비롯된 배려가 될 수 없음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 ④ 사랑이 상대뿐 아니라 자신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어야 함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 ⑤ 상대의 의사를 무시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게 됨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13.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가) 갑: 이익의 평등한 고려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인간을 특별하게 우대하고, 쾌고(快苦)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을 차별하는 태도는 중 차별주의이다.
 을: 삶의 주체는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행위자이다. 동물도 하나의 삶의 주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나)

- ① A: 동물은 인간처럼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 ② A: 이성이 없는 존재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만을 지닌다.
- ③ B: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실험은 허용될 수 없다.
- ④ C: 인간이 아닌 존재도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C: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14.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질문에 모두 옳게 대답한 것은?

갑: 종간의 도덕적 차이에 따라 동물을 차별함을 옹호하는 중 차별주의는 인종 차별주의와 달리 정당한 것이다. 인간과 동물은 도덕적 능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인간의 것을 더 고려하는 차별은 정당하다. 우리가 명료하게 생각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때 우리는 모두 중 차별주의자이다.

을: 본래적인 가치를 갖는 존재들은 모두 일정한 권리를 갖는다. 이와 같은 권리는 자의식이 있고,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삶의 주체라면 어떤 존재라도 갖추고 있으며,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유용성과는 무관하게 주어진다.

병: 인간의 기술은 자연을 모방하고, 인간은 생각이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자동기계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이 인공적인 자동기계들보다 훨씬 더 근사한 자동기계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 것 같다. 이런 자연의 자동기계들은 동물들이다.

| | 질문 | 갑 | 을 | 병 |
|---|-------------------------------|-----|-----|-----|
| ① | 인간과 동물을 차이를 두어 구별하는 것은 정당한가? | 예 | 예 | 예 |
| ② | 인간은 동물을 인간과 동일하게 대해야 하는가? | 예 | 아니요 | 아니요 |
| ③ | 동물은 쾌락과 고통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인가? | 예 | 아니요 | 아니요 |
| ④ | 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존재인가? | 아니요 | 예 | 예 |
| ⑤ | 인간은 동물을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 존중해야 하는가? | 아니요 | 예 | 아니요 |

1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가) 갑: 동물은 자의식적이지 못하므로, 인간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인간은 동물과 관련하여 간접적 의무만을 지닌다.
 을: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면 그 존재의 이익을 인간의 이익과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나)

- ① A: 고통을 느끼는 동물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잘못인가?
- ② A: 인간은 동물과 관련하여 어떤 의무도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③ B: 이성적 존재만이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④ C: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항상 잘못된 것인가?
- ⑤ C: 인간의 이익을 동물의 이익보다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가?

16.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친척들 간의 친애를 다른 친애와 특별히 구별하여 생각할 수 있다. 같은 국민들, 동업자들,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과 이 밖에 이와 비슷한 사람들 간의 친애는 단지 공동체적인 친애인데 이것은 일종의 합의에 의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혈연적 친애는 그 종류가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부자적 친애에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일부로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자기들의 근원으로서 사랑하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식이 출생하자마자 사랑하지만 자식들은 시간이 경과하여 이해하는 힘이 생기고, 또 지각할 줄 알게 된 후에야 그 부모를 사랑할 것이다. 형제는 서로 분리된 개인이지만, 어느 의미에서는 같은 것이다. 함께 교육을 받은 것과 나이가 비슷한 것도 형제 간의 친애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들이다.

- ① 사회적 관계에서의 친애는 합의에 근거한다.
- ② 혈연을 기초로 한 친애의 연원은 부부의 친애이다.
- ③ 가족 간의 친애는 자연스러우면서 필연적인 것이다.
- ④ 가족의 친애 중에서 부모의 사랑이 자식의 사랑보다 먼저 시작된다.
- ⑤ 자식은 출생하고 어느 정도 성숙한 이후에야 부모를 사랑하게 된다.

17. 다음 사상가가 강조하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간 복제의 경우 세포를 증여해 준, 이미 알려져 있는 원형은 모든 기대와 예언, 희망과 공포, 비교, 성공과 실패 및 충족과 실망의 기준을 그의 세포를 받은 자에게 미리 알려 주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자기와 타인의 이러한 선지식은 그가 ‘그 자신’ 됨의 자발성을 마비시킨다. 이 모든 것은 자기가 되어 가는 자가 서서히 구축해 가는 지식이 아니라, 기존의 원형이 가지고 있었던 완료된 지식에서 얻어 낸 것이다. 자신의 타고난 유전 형질에 대해 무지할 권리의 박탈은 모든 물음 가운데 가장 내밀한 물음, 즉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차단시킨다.

— < 보 기 > —

- ㄱ. 인간 복제는 인간이 자신의 유전 형질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를 침해한다.
- ㄴ. 인간 복제는 복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 탐구를 불가능하게 한다.
- ㄷ. 복제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갈 자유를 처음부터 박탈당한다.
- ㄹ. 타고난 유전 형질에 대해 무지할 권리는 인간 복제에서 기술적 실패가 일어난 경우에만 침해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8.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의사는 의료 윤리의 원칙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다른 원칙보다 선행의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 부모가 때로는 자식의 의지에 반대해서 속이거나 말하지 않고 자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듯이, 의사들도 자신이 맡은 환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행동해야 한다.

을: 의사가 환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먼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 의사는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의사의 도움이 환자로 하여금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 지원과 관련하여 환자 외의 다른 사람들의 소망, 필요와 권리들을 고려해야 한다.

- ① 의사는 환자 치료와 관련하여 선행의 원칙을 이행해야 하는가?
- ② 의료인은 의료 지원과 관련하여 정의의 원칙을 고려해야 하는가?
- ③ 의료 행위에서 선행의 원칙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보다 우선하는가?
- ④ 의사는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의료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 ⑤ 의료 행위에서 선행의 원칙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는가?

19.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만약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와 같은 고통을 고려하지 않으려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평등의 원리는 그 존재가 어떤 특성을 갖건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낄 수 없거나 즐거움이나 행복을 누릴 수 없다면, 거기에서 고려해야 할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평등의 원리를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양 집단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함을 뜻하지는 않으며,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함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 ① 유정성을 지닌 존재들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 ② 이익 관심을 지녀야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평등의 원리는 동물들의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 ④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들의 부당한 고통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⑤ 유정성은 다른 존재들의 이익 관심을 고려할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20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가) | <p>갑: 동물들을 폭력적으로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배치된다. 그리고 늙은 말이나 개가 오랫동안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는 간접적으로는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곧 이러한 동물들과 관련된 감사의 정은 그러나 직접적으로 볼 때에는 언제나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일 따름이다.</p> <p>을: 만약 개체들이 미래에 대한 의식과 복지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심리학적 정체성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개체들은 내재적 가치를 갖는 삶의 주체들이다. 인간과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는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 삶의 주체들은 마치 다른 존재들을 위한 자원처럼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p> |
| (나)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 <p>범례</p> <p>A: 갑만의 입장</p> <p>B: 갑, 을의 공통 입장</p> <p>C: 을만의 입장</p> </div> |

- ① A: 도덕 행위자로서 인간은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 ② A: 도덕적인 인간이라면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③ B: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는 단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 ④ C: 도덕적 의무의 차원에서 인간은 동물에 대한 대우를 고려해야 한다.
- ⑤ C: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만이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

21.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 | |
|-----|--|
| (가) | <p>갑: 인간이라는 사실 그 자체로 우리의 생명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침해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리고 수정에서 출생까지의 과정 중 하나의 인간 존재로 볼 수 있는 정확한 시점을 규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배아도 충분히 발달한 인간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불가침의 권리를 지닌다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p> <p>을: 배아는 인격체가 아니라 잠재적인 인간일 뿐이다. 인간 생명은 단계에 따라 서서히 발달하며, 그 발달 단계에 따라 더 높은 윤리적 요구를 할 수 있다. 인간 생명인 배아는 불가침의 권리를 지니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인간의 중대한 이익이 걸린 것이라면 배아 복제 연구는 허용될 수 있다.</p> |
| (나) | |

- ① A: 배아 복제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가?
- ② A: 배아는 인간이 아닌 단순한 세포에 불과한가?
- ③ B: 배아 복제 연구는 인간 생명을 파괴할 수 있는가?
- ④ B: 배아는 잠재적 인간으로 성인과 다른 도덕적 지위를 갖는가?
- ⑤ C: 배아 복제 연구는 조건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22.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관점에서 (나) 주장에 대해 내릴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
|-----|---|
| (가) | <p>갑: 꽤고 감수 능력, 목표를 위해 행위 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삶의 주체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p> <p>을: 꽤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의 이익 관심은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동물들에 대한 우리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p> |
| (나) | |

- ① 갑: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정당하다.
- ② 갑: 동물은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하다.
- ③ 을: 동물이 겪는 고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하다.
- ④ 을: 동물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하다.
- ⑤ 갑, 을: 동물과 인간을 동등하게 대우하려 한다는 점에서 정당하다.

23. (가)의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가) | <p>갑: 성관계는 결혼의 자연스러운 혹은 합당한 목적, 즉 출산을 통한 종족 보존을 성취하기 위해 규제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생식과 남녀의 결합을 모두 포함한다.</p> <p>을: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한계 내에서 최대한의 성적 자유’가 도덕적 성의 기준이다. 자기 자신에게만 해를 주는 성적 활동은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다.</p> <p>병: 성적 쾌락이나 성의 결과로서의 출산이 아니라 사랑만이 인간적 성의 고유한 가치이고, 인간의 성이 특별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도록 만들어 준다.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성은 사랑에 입각하지 않으므로 옳지 못하다.</p> |
| (나)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 < 보 기 > —</p> <p>ㄱ. A: 혼인의 틀 내에서만 성관계가 허용되어야 하는가?</p> <p>ㄴ. B: 성행위에 일정한 도덕적 제약이 있어야 하는가?</p> <p>ㄷ. C: 타인에게 해가 되는 성행위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가?</p> <p>ㄹ. D: 부부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성관계는 도덕적으로 허용되는가?</p> | |
|---|--|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4.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p>강연자: 생명에 대한 사랑이 인격의 보존을 위해 자연에 의해 정해져 있듯이, 성애(性愛)도 종의 보존을 위해 자연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 인격이 상호 책무를 지는 법적인 계약에 의한 특별한 제한 없이는 동물적 쾌락을 즐기 위해 다른 인격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성에 있어 자신의 동물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모독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로서 정숙의 의무를 위배하는 것입니다.</p>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 < 보 기 > —</p> <p>ㄱ. 성애의 자연적 목적은 종의 보존에 있다.</p> <p>ㄴ. 성애 자체는 도덕적인 사랑과는 무관하다.</p> <p>ㄷ. 자신을 성적 충동의 충족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인격성을 포기하는 것이다.</p> <p>ㄹ. 성적 쾌락을 얻기 위해 다른 인격을 이용하는 것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p> | |
|---|--|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남성과 여성의 상이한 관점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도덕 이데올로기에 반영되어 있으며, 독립은 권리의 윤리에 의해 정당화되고, 친밀은 보살핌의 윤리에 의해 지지된다. 권리의 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평등의 개념이며, 공정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데 반해, 보살핌의 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성의 마지막 발달 단계에서 여성은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 보살핌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자각하게 되며, 성숙한 도덕적 행위자는 권리의 윤리와 보살핌의 윤리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 ① 여성의 도덕적 관점과 남성의 도덕적 관점은 화해될 수 없다.
- ② 무조건적 자기희생과 보살핌을 도덕적 이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 ③ 타인의 필요가 아니라 평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행동해야 한다.
- ④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은 독립과 친밀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 ⑤ 도덕적 성숙을 위해서는 공정성을 배제하고 형평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26. (가), (나)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개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녀의 유전적 향상을 위한 부모의 선택은 허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부모가 장차 태어날 아기가 건강하고 뛰어난 자질을 갖도록 할 기회를 높이기 위해 자녀의 유전적 형질을 선택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혹은 앞으로 태어날 자신의 자녀에 대해 생물학적 잠재력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목적으로 유전 공학적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이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에서 그런 일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나) 겸손, 책임, 연대라는 도덕적 지평의 세 개념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유전 공학적 기술을 통한 인간 능력의 인위적 향상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우리의 삶은 선물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은 행위의 산물이 아니며 전적으로 우리의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프로메테우스적 충동을 자제하고 겸손해질 것을 요구한다. 사람들이 유전 공학적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의 본성을 마음대로 개량하는 데 익숙해진다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선물로 여기기보다 성취로 간주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오만해지게 되며, 타인에 대한 겸손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기초를 약화시키고 공동체적 삶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 보 기 >

- ㄱ. (가)는 타인에게 해가 없다면 인간 유전자 조작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 ㄴ. (나)는 유전 공학 기술을 활용한 인간 개량이 사회적 연대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 ㄷ. (가)는 (나)와 달리 유전자 조작을 통한 인간 능력의 인위적 향상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 ㄹ. (나)는 (가)와 달리 인간 유전자 조작은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므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 4 2 5 5 3 5 1 4 4
2 2 3 1 3 2 2 3 1 3
5 5 4 4 4 1

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닥치는 온갖 불편과 근심거리, 지치게 만드는 것과 걱정거리들이 모두 신께서 지워 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아무런 불평 없이 지고 나간다. 이렇게 하면 아주 귀한 위로가 생긴다. 곧,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나아가면 아무리 천하고 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야말로 신이 보시기에는 찬란하고 고귀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을: 생산 과정을 노동 과정의 입장에서 고찰하면, 노동자는 생산 수단을 자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합목적적 생산 활동의 수단으로 대한다. 그러나 생산 과정을 가치 증식(増殖) 과정의 입장에서 고찰하면, 생산 수단은 즉시 노동을 흡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환된다. 더 이상 노동자가 생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한다. 이와 같은 전도 또는 왜곡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특징이다.

— < 보 기 > —

ㄱ. 갑은 직업을 지상에서 신의 영광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ㄴ. 을은 노동의 몫을 분배할 때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ㄷ. 갑은 노동을 신에 대한 봉사로, 을은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는 활동으로 본다.

ㄹ. 갑, 을은 개인적인 부의 축적을 노동의 궁극 목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천하에 도(道)가 있을 때에는 벼슬을 하고, 도가 없으면 숨어 지내야 한다. 나라에 도가 있을 때 가난하고 비천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나라에 도가 없을 때 부귀(富貴)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을: 신은 개개인이 자신의 천직(天職)을 존중하도록 명령하신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모함에서 벗어나는 일반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은 각 사람이 각각 상이한 삶의 분야에서 자신의 특정한 직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하셨다. 그리고 신은 그와 같은 삶의 분야를 소명(召命)으로 호칭하셨다.

① 갑은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보다 언제나 선하다고 주장한다.

② 을은 직업 노동을 통해 성공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강조한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직업 생활에서 금욕적인 태도의 실천을 강조한다.

④ 을은 갑과 달리 현세적 직업 노동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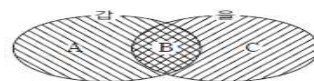
⑤ 갑, 을은 정당한 직업 노동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인정한다.

3.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자유 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기만이나 부정 이득의 발생 없이 자유 경쟁 참여라는 게임 규칙 안에서 기업의 이윤을 늘리는 활동을 하는 데에 전념하는 것이다. 회사의 임원이 자기 주주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승인해야 한다는 사회적 풍조는 자유 사회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분위기를 만연시킬 수 있다.

(가) **을:** 이윤 극대화라는 단순한 규칙이 사회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중 하나는 생산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구매자보다 판매자가 그럴듯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회사가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무언가 생각하는 것, 즉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법률적이든 무언가 책임감을 갖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다. 생산품의 안전성 맥락에서, 회사가 받아들인 윤리 규칙에 의해 경제적 효율성은 훨씬 더 향상된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 < 보 기 > —

ㄱ. A: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ㄴ. B: 기업은 이윤 증대를 위해 경제적인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

ㄷ. C: 기업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

ㄹ. C: 기업이 이윤 극대화 이외에 구매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4.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수호자들에게서 변변찮은 자손이 생길 경우 다른 사람들 사이로 보내져야 하고 다른 집단에게서 우수한 자손이 생길 경우 수호자들 사이로 보내져야 한다. 이것이 의도한 바는 저마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배치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각자가 한 가지 일에 종사함으로써 여럿이 아닌 하나가 되도록 하고, 나라 전체가자연적으로 여럿이 아닌 ‘한 나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을: 분업을 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4,800개의 편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각자 독립적으로 혼자 일한다면 틀림없이 하루에 20개의 편은커녕 한 개의 편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중략)… 사회가 미개한 상태에서는 한 사람의 작업인 것이 진보된 상태에서는 여러 사람의 작업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개량된 사회에서는 어디서나 농부는 농부 이외의 다른 것일 수 없고, 제조업자는 제조업자 이외의 그 무엇도 아닌 것이 통례이다.

병: 노동이 분화되자 각 개인은 하나의 일정한 배타적 영역을 갖게 되었다. 그는 한 사람의 사냥꾼, 한 사람의 양치기, 한 사람의 어부, 한 사람의 비평가이며, 생계 수단을 잃지 않고자하는 한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와 달리 아무도 배타적 영역을 갖지 않고 각자가 원하는 분야에서 스스로를 도야시킬 수 있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아침에는 사냥을, 오후에는 낚시를, 저녁에는 목축을, 밤에는 비판을 할 수 있다.

< 보 기 >

>

ㄱ. 갑은 각자의 능력과 성향에 따라 직업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ㄴ. 을은 생산 과정에서의 분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본다.

ㄷ. 병은 사회 통합을 위해 각자는 하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ㄹ. 갑, 을은 병과 달리 분업의 원리를 따라야 국가가 발전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소외란 인간이 만든 노동 생산물이 생산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되어 인간에게 낯선 존재, 대립적인 존재가 되고 나아가 이것들이 오히려 인간을 억압해 종속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소외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자는 생산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해 자본가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을 해야 한다. 그 결과 노동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자신이 생산한 물건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노동 소외를 겪게 된다. 노동이 자아를 실현하는 활동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강제적인 활동이 되는 것이다.

< 보 기 >

ㄱ.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ㄴ. 노동자는 사회 분업에 참여함으로써 인간 소외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

ㄷ. 노동은 외부의 억압이나 강요가 없는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ㄹ. 노동을 통해 인간은 자아를 실현하면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6. 갑, 을의 사상적 입장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갑: 사회가 비도덕적인 원인은 개인의 도덕적 의사결정 능력, 실천 의지, 습관 등의 결여에 있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들은 개인이 자신의 양심을 함양하고 덕목을 실천하려는 자세를 지님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을: 사회가 비도덕적인 원인은 사회 구조나 제도의 모순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의 윤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도덕성 함양과 더불어 사회 구조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전혀 도덕적 승인을 얻어 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종교적으로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 보 기 >

| | |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강제력이 필요한가? | |
|---------------------------------|-----|-------------------------------------|-----|
| | | 예 | 아니요 |
| 개인의 선의지는 사회 정의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는가? | 예 | A | B |
| | 아니요 | C | D |

갑 을

- ① A B
② B A
③ B C
④ C D
⑤ D A

7. ㉠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회 집단은 개인보다 비도덕적이다. 그 이유는 개인들의 이기심이 하나의 공통된 충동으로 나타날 때 이를 억제할 강력한 사회적 힘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강제력을 바탕으로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부정의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합리성의 발전이나 종교적 선의지의 함양만으로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부정의를 극복할 수 있고 집단 간의 조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고 생각한다.

< 보 기 >

>

- ㄱ. 집단 간 대화를 통해서만 집단 간의 사회적 조화에 이를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ㄴ. 인간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강제력이 꼭 필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ㄷ.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사회 문제는 합리적 사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ㄹ. 부정의로 이익을 얻는 집단에 대항하는 힘이 형성되어야 정의 실현이 가능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8.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인간 사회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제반 문제를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사회의 요구와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여간해서 화합되기 힘든 지속적인 갈등이 발견된다.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다. 그리고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사회는 강제력과 같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얻어 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결국에는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은 자신보다 뛰어난 것을 보고서 자신을 잃기도 하고 찾기도 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두 도덕적인 입장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양자 사이의 갈등도 절대적이지 않다.

| 학생 입 장 | 갑 | 을 | 병 | 정 | 무 |
|---|---|---|---|---|---|
| 집단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적 강제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 V | | | V | V |
| 개인의 도덕과 사회의 도덕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각자가 지닌 독특한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 | V | | V | V |
| 정의 달성을 위한 비합리적 수단이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V | | V | V | |
|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방법은 개인의 도덕성에 대해 배타적이며 개인의 도덕성과 조화될 수 없다. | | V | V | | V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모든 일에 있어서 신이 우리의 인도자임을 알면, 걱정과 수고와 곤란과 그 밖의 짐이 있더라도, 적지 않은 위안을 받게 될 것이다. 정치하는 사람은 더욱 기꺼이 직무를 수행할 것이요, 일가의 가장은 그 의무에 전심할 것이다. 각자의 생활 양식에서 받는 불편과 근심과 권태와 불안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신께서 지워 주신 것이라고 믿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참고 견딜 것이다.

을: 노동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의 과정이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연에 영향을 주고, 또한 자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노동을 통해 가공된 자연을 보면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이러한 노동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더욱 개발한다. 그런데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서는 생산 수단에 포함된 죽은 노동이 노동자의 살아 있는 노동을 지배하는 전도 또는 왜곡이 발생한다.

< 보 기 >

>

ㄱ. 갑: 신의 소명을 수행하는 것과 현실의 직업에 충실한 것은 별개의 것이다.
 ㄴ. 갑: 미천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신의 소명이라면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한다.
 ㄷ. 을: 인간은 자발적 노동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ㄹ. 갑, 을: 건전한 노동을 통한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는 수용 가능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0.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회 정의와 미래의 평화는 단 하나의 사회 전략이 아니라 여러 수준에서 도덕적 요인들과 강제적 요인들이 결합되어 있는 많은 사회 전략들에 의존한다. 인간 사회의 항구적인 평화와 동포애에 대한 환상은 개인의 양심과 통찰력에 의해 생겨난 환상일 뿐 인간 집단에 의해서는 실현될 수 없는 꿈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 집단의 근본 관심은 강제가 없이 완전한 평화와 정의로 충만된 이상적 사회의 건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력이 충분히 비폭력적인 그런 사회의 건설에 있다.

< 보 기 >

ㄱ. 집단의 이기적 충동은 합리적인 사회 세력 형성을 어렵게 한다.
 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양심과 이성의 발휘만으로 해소할 수 있다.
 ㄷ. 강제력 없이 집단의 생활을 조직할 수 있는 도덕적 요인은 거의 없다.
 ㄹ. 사회에서 강제적 요인은 필요하면서도 위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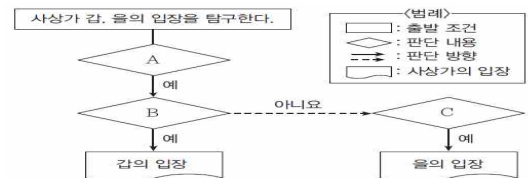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1.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프로테스탄트적 금욕은 노동을 직업으로,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 가장 좋은 수단으로 파악함으로써 심리적 동인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이 금욕은 다른 면에서 기업가의 화폐취득도 ‘소명’이라고 해석했다.

(가) 을 : 노동과 지식의 분리 과정은 개개의 노동자에 대해 자본가가 집단적 노동 유기체의 통일성과 의지를 대표하게 되는 단순 협업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 분리 과정은 노동자를 부분 노동자로 전락시켜 불구자로 만드는 매뉴팩처에서 더욱 발전한다.

(나)



< 보 기 >

>

ㄱ. A: 직업에서의 노동은 생계유지 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가?
 ㄴ. B: 자본주의에서의 분업화된 노동은 노동자의 자아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가?
 ㄷ. B: 자본 축적의 원천을 소명 정신에 근거한 직업 생활의 강조로 보아야 하는가?
 ㄹ. C: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특수한 기능만을 담당하게 되므로 노동 소외를 겪게 되는가?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대인의 일이 있고, 소인의 일이 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어떤 사람은 힘을 수고롭게 하니,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을 다스리고, 힘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의 다스림을 받는다.

을: 장인이거나 상인이 전사 계층이 되려 하거나 전사가 자격도 없으면서 통치자 계층이 되려고 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직분을 교환하거나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한다면 국가는 파멸될 것이다.

— < 보 기 > —

ㄱ. 갑: 직업을 통한 경제적 안정이 도덕적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다.

ㄴ. 을: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은 상보적이고 대등한 관계이다.

ㄷ. 을: 각자 자신의 성향에 맞는 한 가지 일에 종사해야 한다.

ㄹ. 갑, 을: 사회적 역할은 적성과 선호에 따라 분담되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3. 갑, 을, 병 사상가들이 서로에게 제기할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며,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농군은 농사를 지어야 하고, 선비는 벼슬살이를 해야 하고, 공인은 물건을 만들어야 하고, 상인은 장사를 해야 한다. 이것을 위대한 근본이라고 한다.

을: 신(神)은 여러 가지 삶의 계층과 양식들을 구분함으로써 각 사람이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해 두었다. 신은 그 같은 삶의 양식들을 소명(召命)이라 명하였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신께서 정해 준 초소라고 생각해야 한다.

병: 각 사람은 자기 나라와 관련된 일 중에서 자기의 성향이 천성적으로 가장 적합한 그런 한 가지 일에 종사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제일을 하고 남의 일에 일체 참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 | |
|---|--------|--|
| ① | 갑이 을에게 | 능력보다는 신의 명령에 따라 직업을 선택해야 함을 경시한다. |
| ② | 갑이 병에게 |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에 따라 분업을 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 ③ | 을이 갑에게 | 직업에 종사하는 목적이 정의의 실현임을 모르고 있다. |
| ④ | 병이 갑에게 |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직업에 종사해야 함을 경시하고 있다. |
| ⑤ | 병이 을에게 | 신의 명령보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 직업에 종사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14.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개인의 도덕적 상상력이 동료 인간의 요구와 이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정의는 달성될 수 없다. 또한 정의 달성을 위한 비합리적인 수단이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회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학생 \ 입장 | 갑 | 을 | 병 | 정 | 무 |
|--------------------------------------|---|---|---|---|---|
| 사회 구조와 제도는 개인의 도덕적인 삶에 영향을 미친다. | ✓ | | | ✓ | ✓ |
| 집단 간의 관계는 항상 윤리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 | ✓ | ✓ | ✓ | |
| 개인 윤리적 이타성과 사회 윤리적 정의는 항상 상호 배타적이다. | ✓ | ✓ | | | ✓ |
| 집단 간 대립 상황에서도 개인은 비이기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 | | ✓ | ✓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대인이 할 일이 있고, 소인이 할 일이 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모두가 지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이는 마음을, 어떤 이는 몸을 쓰는 것이다.

을: 수호자는 어떤 시민들이라도 통행이 금지된 집이나 건물을 가져서는 안 되며, 공동 식사 및 공동 생활을 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혼 안에 신들이 부여한 신성한 금을 세속의 금과 섞어서는 안 된다.

- ① 갑: 다양한 직업들 사이에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성립한다.
- ② 갑: 통치자는 구성원에게 생계유지의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③ 을: 생산자 계층은 사유 재산을 일체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
- ④ 을: 공직자는 자기 절제와 술선수범의 자세를 지녀야만 한다.
- ⑤ 갑, 을: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사회적 분업이 필요하다.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어떤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나중에 자신의 부에 우쭐해져서는 전사의 부류로 이행하려 들거나, 혹은 전사 중의 어떤 이가 자격도 없으면서 속의 결정하여 수호하는 부류로 이행하려 든다면, 그리하여 이런 사람들이 서로 도구나 직분을 교환하게 된다면, 또는 동일한 사람이 이 모든 일을 동시에 하려 든다면 이 교환이나 참견은 이 나라에 파멸을 가져다주게 될 것이다.

을: 곡식을 주고 농기구와 바꾸는 것이 도공과 대장장이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것처럼, 도공과 대장장이가 기계와 그릇을 곡식과 바꾸는 것 역시 농부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 사람의 몸에는 백공(百工)들이 만드는 것이 다 필요한데, 반드시 모든 것을 손수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천하의 사람들을 이끌어서 지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인은 마음을 쓰고 소인은 힘을 써야 한다.

- ① 갑은 모든 사람은 자급자족하면서 살아야 평화롭다고 본다.
- ② 을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일을 선택해야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모든 구성원이 육체노동에 종사해야 사회가 안정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구성원은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알맞은 탁월성을 발휘하여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4 5 3 4 4 2 3 1 3 4
5 2 5 4 3 5

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신이 우리 모두에게 삶의 모든 행위를 할 때 그의 부르심에 주목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신은 여러 가지 삶의 계층과 삶의 양식들을 구분해 놓으심으로써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해 두셨다. 신은 그 같은 삶의 양식들을 소명(召命)이라 명하셨다. 그 러므로 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신께서 정해 주신 초소라고 생각해야 한다.

- ①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부를 축적하는 것은 잘못이다.
- ② 직업의 궁극적 목적은 부의 축적과 행복 추구에 있다.
- ③ 직업은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에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 ④ 직업에는 귀천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 ⑤ 직업 활동을 성실하게 하면 구원받게 됨을 깨달아야 한다.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노동은 상품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이 상품을 생산하는 관계 속에서 노동은 그 자체와 노동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생산한다. 이런 사실은 노동이 생산하는 대상이, 곧 노동의 산물이 낯선 존재로서, 생산자와 무관한 권력으로서 노동과 맞선다는 것을 뜻한다. 노동의 생산물은 하나의 대상 속에 고정된, 사물화된 노동인 바, 이는 노동의 대상화이다. 노동의 이러한 현실화는 국민 경제학적 상태에서는 현실성의 박탈로, 대상화는 대상의 상실과 대상에 대한 예측으로 나타난다.

| 학생 | 갑 | 을 | 병 | 정 | 무 |
|--|---|---|---|---|---|
| 입장 | | | | | |
| 노동 분업이 진행될수록 노동자의 소외는 심화된다. | V | | | V | V |
| 사유 재산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 구조를 변혁해야 한다. | V | V | | V | |
|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자이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 | | V | V | V |
| 이상 사회에서는 노동자의 업적과 능력에 비례하여 분배의 몫을 정한다. | | V | V | | V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3.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최근 사회 과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리적 자본 혹은 인적 자본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듯이 사회적 자본 역시 개인과 집단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자본이 물리적 사물, 인적 자본이 개인의 특성을 가리키듯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들 사이의 연계,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을 가리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자본은 몇몇 사람들이 시민적 덕성이라고 부르던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 보 기 >

- ㄱ. 물리적 자본은 인적 자본과 달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
- ㄴ.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는 금전적 자본으로 요약된다.
- ㄷ. 시민적 덕성은 사회관계의 네트워크 속에서 긍정적인 힘을 발휘한다.
- ㄹ.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은 개인과 집단의 생산성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4. 갑, 을 사상가가 모두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농사를 부지런히 하고 절약하면 하늘이 가난하게 할 수 없고, 농사를 게을리하고 사치하면 하늘도 부자되게 할 수 없다. …(중략)… 비록 왕공 사대부의 자손이라도 예의에 합하지 아니하면 서민에 편입하고, 비록 서민의 자손이라도 학문을 닦고 품행을 단정히 하여 예의에 합치하면 경상(卿相)이나 사대부에 올린다.
을: 사농공상에 관계없이 놀고먹는 자에 대해서는 관에서 벌칙을 내려 세상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재능과 학식이 있으면 비록 농사꾼이나 장사치의 자식이 낭묘(廊廟)에 들어가 앓더라도 참람스러운 것이 없고, 재능과 학식이 없다면 비록 공경(公卿)의 자식이 하인의 일을 할지라도 한탄할 것이 없다.

- ① 직업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
- ② 타고난 신분과 재능에 따라 직업이 정해져야 한다.
- ③ 직업에서는 세습적 신분보다 자신의 후천적 노력이 중요하다.
- ④ 직업의 귀천을 분별하기 위해서 모든 직업은 세습되어야 한다.
- ⑤ 신분 질서의 안정을 위해 사농공상의 직업은 세습되어야 한다.

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프로테스탄트들은 욕욕과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신을 위해서라면 부자가 되기 위해 노동 을 해도 괜찮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부(富)는 게으른 휴식과 죄 많은 삶의 향락에 대한 유혹으 로서 위협시킨 것이며, 부의 추구도 나중에 근심 없이 살기 위한 것일 경우에만 위협시킨 것이 었다. 반면에 직업 의무의 행사로서의 부의 추구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뿐만 아니라 명령된 것 이었으며, 따라서 노동 능력이 있는 자가 구걸하는 것은 나태이므로 죄일 뿐 아니라 이웃 사랑 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 (중략) ... 부 단하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직업 노동을 단적 인 최고의 금욕적 수단이자 동시에 거듭난 자와 그 신앙의 진실성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 한 증명이라고 간주한 종교적 평가는 우리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부르는 생활관의 확장을 위 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가 아닐 수 없다.

- ① 프로테스탄트들은 재산 낭비적인 향락과 사치재 소비를 반대했다.
- ② 프로테스탄트들은 직업을 신이 명령을 내린 신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 ③ 프로테스탄트들은 금욕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이익 추구 자체를 죄악으로 간주했다.
- ④ 신의 소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직업 노동은 정당화될 수 있었다.
- ⑤ 절제와 금욕을 강조하는 프로테스탄트들의 윤리는 자본주의 발달에 원동력이 되었다.

6. 다음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이라면 도덕가들과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의 통찰들을 모두 정당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인간 사회가 사회적 협력의 범위를 아무리 확대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분쟁은 불가피하다는 너무나도 엄연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인간 사회에서 강제력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최소화함으로써, 그리고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밝혀 줌으로써 쓸데없는 갈등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사회를 구원하고자 할 것이다.

< 보 기 >

- ㄱ. 합리성의 발전이나 선의지의 함양만으로 집단의 부정의를 극복할 수 있는가?
- ㄴ. 사회 정의 실현은 부정의로 이익을 얻는 집단에 대항하는 힘이 형성되어야 가능한가?
- ㄷ.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사회 부정의를 극복하려면 정치적 강제력의 행사가 필요한가?
- ㄹ. 합리적인 사회는 강제력의 제거보다는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의 정당성 여부에 더 큰 강조점을 두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갑, 을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기업 경영자들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주주와 노동조합원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을 넘어서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견해가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자유 경제의 성격과 본질을 근본적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자유 경제에서의 기업이 지는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기업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는 것, 즉 수입이나 기만행위 없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것이다.

을: 기업들은 앞으로 점점 더 책임 있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기업 경영자들의 공공 의식이 높 아져서라기 보다는,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이 경쟁 우위를 점하는데 하나의 자원이 된다고 믿는 경영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보다 책임 있게 경영하는 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쟁자 들에 비해 비즈니스 위험에 덜 노출될 것이다. 그런 기업들은 소비자 불매 운동을 예방하 고, 보다 낮은 비용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으며, 헌신적인 직원과 충성스러운 소비자들 의 지지를 얻는 데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 보 기 >

- ㄱ. 기업은 어떤 형태의 사회적 책임에서도 면제되어야 하는가?
- ㄴ. 기업에 이윤 추구 이외의 사회적 책임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가?
- ㄷ. 기업의 자선적 책임 수행은 기업의 소유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인가?
- ㄹ. 기업은 공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적 자본의 조직 단위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8.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법 제도에 순응하고 시장으로부터 이탈하지 않으면서 생산 활동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기업에게 그 이상의 역할, 예를 들어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제도와 국가가 할 일을 침범하는 것이다.

을: 기업은 이윤 추구라는 기업 본연의 활동을 해야 하지만 기업 활동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일함으로써 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인권,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 ① A: 기업의 본질은 이윤 추구에 있다.
- ② A: 기업에게는 어떤 책임도 부과할 수 없다.
- ③ B: 기업의 경영인은 주주에게만 책임을 져야 한다.
- ④ C: 기업은 이윤 추구를 배제하면서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
- ⑤ C: 기업은 이윤 추구 이외의 사회적 책임도 수행해야 한다.

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윤리적으로 지향된 모든 행위는 서로 다른 두 원칙, 즉 결과에 상관없이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심정 윤리와 예견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책임 윤리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 정치에 소명을 가진 인간은 순수한 의도와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직책에 임하되, 때로는 권력을 동원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

- ① 정치인은 소명 의식을 갖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 ② 정치인의 행위는 그 의도만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③ 정치인에게는 책임 윤리와 더불어 심정 윤리도 요구된다.
- ④ 정치인은 결과에 대한 책임 의식과 더불어 강인한 신념을 지녀야 한다.
- ⑤ 정치인은 행위의 인과성을 고려하여 의도한 결과의 성취를 위해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

10.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인간 역사에서 사회적 각성과 도덕적 선의지의 증가가 사회적 갈등의 야만성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들로는 갈등 자체를 제거할 수 없다. 갈등의 제거는 인간 집단들이 어느 정도의 이성적 동정심을 발휘할 수 있고, 또한 도덕적 선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될 때에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인간 본성의 불가피한 한계 및 인간의 상상력과 지성의 한계를 고려해 볼 때, 개인들은 접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 사회의 능력을 넘어서 있는 이상이다.

| 입장 | 학생 | 갑 | 을 | 병 | 정 | 무 |
|--|----|---|---|---|---|---|
| 집단 내 개인들 간의 갈등을 도덕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 V | V | | V | |
| 집단들 간의 관계는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집단이 지닌 힘의 비율에 따라 수립된다. | | | | V | V | V |
|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 허용하지 않을 강제력 사용도 가능하다. | | V | | V | | V |
| 집단은 개인의 도덕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개인은 집단의 도덕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 | | V | | V | V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1. 다음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은 상품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산을 통하여 노동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생산해 낸다. 더 많이 생산하는 노동자일수록 더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노동자의 노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된 것이다. 즉 노동자가 자기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타자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소외된 노동은 인간의 삶을 생활 수단으로만 간주함으로써 인간에게 고유한 자유로운 의식적 활동으로부터 인간을 소외시킨다. 소외된 노동은 결국 인간에 의한 인간의 소외를 일으킨다. 이러한 소외의 근본 원인은 결국 사적 소유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 ① 노동자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부의 축적은 정비례하는가?
- ② 노동 소외 현상은 자본가의 자선 행위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가?
- ③ 노동자의 능력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식인가?
- ④ 사적 소유를 철폐해야만 노동자들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 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분업을 확대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가?

12.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勞心]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의 힘을 수고롭게[勞力] 한다.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을 다스리고, 몸의 힘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는 남을 먹여 살리고, 남을 다스리는 자는 남에 의해 먹고사는 것이 천하의 보편적인 원리이다.
- 고정적인 생업[恒産]이 없으면서도 항상적인 마음[恒心]을 지니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다. 일반 백성의 경우는 고정적인 생업이 없으면 그로 인해 항상적인 마음도 없어진다. 만일 항상적인 마음이 없다면 방탕하고 편벽되고 간사하고 사치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 입장 | 학생 | 갑 | 을 | 병 | 정 | 무 |
|---------------------------------------|----|---|---|---|---|---|
| 남을 다스리는 사람은 몸의 힘을 쓰는 일에 능해야 한다. | | √ | √ | | √ | |
|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다. | | | | √ | √ | √ |
| 경제적 안정은 백성들이 도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 | √ | | √ | | √ |
|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 | √ | |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이 한 고을을 얻으면 건방져지고 사치스럽게 되어 절약하지 않고 재물을 함부로 써서 빚이 날로 불어나면 반드시 욕심을 부리게 된다. 욕심을 부리면 아전들과 짜고 일을 꾸며 이익을 나눠 먹게 되고, 이익을 나눠 먹다 보면 백성들의 고혈을 짜게 된다. 그러므로 절약은 백성을 사랑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일이다.

을: 국가의 수호자는 결혼을 해서도 안 되고 사유 재산을 가져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이들은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영혼 안에 신성한 금이 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금은 필요하지 않다. 수호자는 세상의 금을 멀리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자신도 구하고 나라도 구할 수 있다.

< 보 기 >

- ㄱ. 갑: 공직자는 검소하고 청렴한 삶을 살아야 한다.
- ㄴ. 을: 수호자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ㄷ. 갑, 을: 다스리는 사람이 직책에 맞는 능력을 지녀야 정의 실현이 가능하다.
- ㄹ. 갑, 을: 다스리는 자는 공익을 추구해야 하므로 사적 소유가 금지되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4.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개인과 사회 집단의 일상적인 관계에서 크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사랑의 정신은 점차 그 연약성을 드러낸다. 가장 높은 수준의 종교적 선의지를 가진 개인들로 이루어진 국가도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한 국가에 속한 개인들은 순수한 자애심을 자아낼 수 있을 정도로 다른 국가의 개인들의 입장에 자신을 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선의지는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충성이라는 여과를 거쳐 국가의 이기주의를 확대하는 경향까지 나타난다. 역사상 그 어떤 국가도 그 활동에서 순수하게 이타적일 수 없다.

< 보 기 >

- ㄱ.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 ㄴ. 자애심이 큰 개인들로 이루어진 국가일지라도 국가 간 대립은 피할 수 없다.
- ㄷ. 국가에 대한 맹목적 애국심이 국가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ㄹ. 개인의 양심과 집단의 이기성 간의 갈등은 지속되기 때문에 해결이 불가능하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명분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말에 순서가 없게 되고, 말에 순서가 없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악(禮樂)이 일어나지 않는다.
을: 국가가 올바른 것은 그 안의 세 계층이 제 할 일을 맡아 하기 때문이며, 국가가 절제 있고 용감하고 지혜로운 까닭은 이들 세 계층의 심적 상태와 습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모든 시민들은 저마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배치되어야 한다.

< 보 기 >

- ㄱ. 갑: 자신의 이름[名]에 걸맞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ㄴ. 을: 자신의 타고난 기질에 부합하는 직업에 종사해야 한다.
ㄷ. 을: 각자가 일을 통해 탁월성을 발휘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
ㄹ. 갑, 을: 각자는 자신의 직분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직분에서 덕을 드러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6.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천자(天子)처럼 귀해지고 온 세상을 차지할 만큼 부유해지는 것은 사람들의 성정(性情)으로서 다 같이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욕심을 따른다면 경제적 형편은 그 욕심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고 물건은 충분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옛 임금은 예의를 제정하고 분별을 마련해 귀하고 천한 등급이 있게 하고, 능력 있고 능력 없는 이의 분별을 마련하였다.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일을 맡아 하게 함으로써 각자에게 합당한 일을 갖게 하였다. 그러한 뒤에야 녹으로 받은 곡식이 많고 적고 두텁고 얇은 균형이 있게 되었다. 이것이 곧 여러 사람이 모여 살면서 하나로 조화되는 도(道)이다. 어진 이가 윗자리에 있으면 곧 농군은 힘써 밭을 갈고, 상인은 잘 살펴 재물을 늘리고, 여러 공인들은 기술과 기계를 써서 물건을 만든다. 사대부부터 제후들에 이르기까지는 모두가 지혜와 능력으로써 그들의 관직을 다한다. 이것을 일러 지극한 공평함이라고 한다.

| 학생 입장 | 갑 | 을 | 병 | 정 | 무 |
|--|---|---|---|---|---|
| 구성원들의 사회적 역할은 덕과 능력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 √ | √ | | √ | |
| 통치자는 백성들의 개인적인 모든 욕구가 충족되도록 분배해야 한다. | √ | | √ | | √ |
| 자신의 직업에 따라 일은 달리하여도 보수는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 | | √ | √ | √ |
|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사회적 직분 간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 | √ | | √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7. 다음 사상가가 공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현명한 군주가 백성의 생업을 관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충분하도록 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기르기에 충분하도록 하며, 풍년에는 내내 배부르게 하고 흉년에는 죽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런 후 백성들을 몰아서 선(善)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백성들이 따르기가 쉬운 것이다. …(중략)… 백성들은 일정한 생업(恒産)이 없으면 그로 인하여 항상 일정한 마음(恒心)이 없어진다. 항상 일정한 마음이 없어지면 방자함, 편벽됨, 사치스러움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으니, 죄에 빠지게 된 연후에 쫓아가서 벌을 주면 이는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반드시 공손하고 절약하며, 아랫사람에게 예우하며 백성에게 취하는 것에 일정한 법제를 둔다.

< 보 기 >

- ㄱ. 백성들은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면 편벽된 태도가 생겨나는가?
ㄴ. 통치자는 백성들의 안정적 삶과 무관하게 인의 실현에 힘써야 하는가?
ㄷ. 백성들의 생업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통치자의 역할인가?
ㄹ. 통치자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데에 일정한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8.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A, B, C의 행위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가) | 사람들은 각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는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다. 우리는 각 사람이 자신의 소명(召命)에 따라서 부지런히 일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신을 더 기쁘게 해 드리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
| (나) | ●A는 직업 활동에서 이웃에 대한 돌봄이나 배려 없이 오직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였다. ●B는 직업에 종교적 의미를 두지 않고 오직 현세에서 부의 축적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일에만 매진하였다. ●C는 여러 직업 중 신을 섬기는 성직(聖職)을 최고의 직업으로 여기고, 다른 직업에 대해서는 배타적 태도를 취하였다. |

— < 보 기 > —

ㄱ. A는 직업 활동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간과하였다.
ㄴ. B는 현세에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하였다.
ㄷ. C는 성직만이 아니라 세속적 직업도 귀중한 직업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하였다.
ㄹ. C는 직업에 충실히 임하는 것과 신의 뜻을 섬기는 것이 무관함을 간과하였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9.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노동은 기계화의 확대와 분업에 의해서 자립성이 사라진다. 노동자는 모든 매력을 잃게 되고, 기계의 단순한 부속물이 되어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더 단순하고 더 쉽게 익힐 수 있는 조작일 뿐이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드는 비용은 기껏해야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존 수단 정도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자는 부를 생산하면 할수록, 그 생산의 힘과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더 가난해진다. 노동자는 상품을 만들수록 자신은 그만큼 더 값싼 상품이 된다. 사물 세계의 가치 증대에 정비례해서 인간 세계의 가치 저하가 심해진다.

— < 보 기 > —

ㄱ.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기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ㄴ. 분업 체계가 발달하면 노동자의 노동 소외는 극복될 수 있다.
ㄷ.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 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왜곡이 발생한다.
ㄹ.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기업은 점점 더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공선에 관심을 갖는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이 경쟁 우위를 점하는 데 하나의 자원이 된다고 믿는 경영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책임 있게 경영하는 기업은 헌신적인 직원과 소비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훨씬 유리해질 것이다.

을: 기업은 기업을 소유한 주주들의 도구로 간주되어야 한다. 기업이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행위는 기업의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기부 행위는 개별 주주들이 자신의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일 뿐이다.

(나)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A: 예 / 아니요

B: 예

C: 예

갑의 입장

을의 입장

<법 레>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갑, 을의 입장

— < 보 기 > —

ㄱ. A: 기업은 이윤 추구의 목적을 배제하고 사회에 공헌해야 하는가?
ㄴ. B: 기업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가?
ㄷ. B: 기업의 공공선을 위한 기여는 기업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ㄹ. C: 기업에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선 사회적 책임의 요구는 부당한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5-1

4-2 정답⇒

| | |
|-----------|-----------|
| 4 1 3 3 3 | 5 2 5 2 3 |
| 4 3 2 4 4 | 2 2 1 4 5 |